

만남

12

2018

통권 539호

특별기획 | 일상에서 제자답게

송년특집 | 거룩한 공회와 예수 탄생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만남의 초점



복음 전도의 깃발을 들다! 그리스도의 몸 된 영락교회가 복음 전도의 깃발을 다시 들었다.

분열과 분단으로 신음하는 이 땅과 온 세상에,

오직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이뤄질 것이다.

지난 간증주일 영락 뜰을 가득 메운 성도들 중간에 어느 집사가 들고 있는

새가족 환영 피켓이 『만남』 기자 눈길에는 마치 복음 전도의 깃발처럼 우뚝 솟아보였다.

만남

2018년 12월호 통권 539호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발행 2018. 12.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영근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사진 유승현 기자

표지설명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공회의
머리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축하하며 친양하는
영락 어린이들 모습을
표지에 담았다

교회표어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고전 14:33상)

목회서신 02 • 낙엽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 김운성

특별기획 04 • 영락 기독미용인 좌담회

일상에서 제자답게 언제 어디든 부르시면 달려가요 | 김희정, 박근우, 조덕일

송년특집 거룩한 공회와 예수 탄생

-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10 •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온전한 영락교회 | 김태균
-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14 • 그가 오신 이유, 우리가 살아갈 이유 | 김응신
- 거룩한 공회와 참된 생활 18 • 거룩한 공교회를 찾아서 | 백성우



영락지금 24 • 영락 명동노방전도대, 청년기자가 만나다
| 우대권, 목진경, 오승현

한 권의 묵상 27 • 오 할레스비의『기도』를 읽고 | 박일환
너 괜찮아? 30 •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 | 유인선



국내선교 33 • 겨울이 오기 전, 선물 | 유혜정



문화광장 36 • 팔색조처럼 다채롭게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노래한다 | 조형민

39 • 12월의 영락영화
영락의 울타리 40 • '붕어빵의 비밀'을 공연하다
공연을 마치고 | 류혜선
44 •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 박인숙
46 • 하나님과 대화하기 : 영락수련원에서 | 박현옥
49 •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 강용석, 이심



이웃사랑 52 • 2018년 사회봉사부 사역을 되돌아보며 | 박재현

교회소식 55 • 새가족 환영 / 목회력

56 • 2018년 영락교회 선교대회

58 • 이철신 원로목사 설교집 출간

60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등

66 • 영락역사자료

야곱의 우물가 67 • 영락화랑: 아름다운 묵상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68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크리스마스 별 접기

화보 69 • 2018년 영락교회 선교대회

낙엽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지난 지 오래입니다. 기온이 내려간다는 보도가 반가웠고, 가을의 입구에 섰을 때는 어김없이 계절을 순환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이맘때면 품은 품었던 작은 결심을 올해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작은 결심이란 단풍이 절정에 달할 무렵, 그 어느 산골짜기 입구에서든지 한가로이 거닐면서 아직 가지에 붙은 채 마지막 빛을 발하는 단풍잎과 그들보다 조금 먼저 땅에 떨어진 그들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삶을 음미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호승 님의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낙엽이 떨어질 때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시구가 떠오르면서 뭔가 삶이 성숙해질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단풍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풍에 얹힌 일화가 있습니다. 십 수 년 전, 부산의 기독실업인회 회원들과 내장산 단풍구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역에서 열차로 정읍역까지 간 후, 관광버스로 갈아타고 내장산 입구에 내려 자유롭게 단풍 산을 만끽한 후 정해진 시간에 다시 모여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임원들께서



김운성 위임목사

열차표를 예매했고, 부부 동반으로 부산역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는 1호차나 2호차를 예매했어야 했음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앞의 두 칸은 조용히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반면, 그 뒤는 시끄럽게(?) 갈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탄 곳은 유감스럽게도 3호차였습니다. 출발하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술병을 끼내들었고, 잠시 후부터 보기 힘든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노래장단에, 통로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에, 나중엔 의자 사이를 넘나들기 까지 했습니다. 그중에 검정색 옷을 입은 한 아주 머니가 유달리 돋보였습니다. 정신은 술에 맡긴 채, 그분은 육중한 몸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게 의자들을 넘어 다니며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일행들은 박수를 보냈지요. 반면 우리 일행은 도착할 때까지 심각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내장산 입구로 걸어 들어가면서 그 아름다움에 잠시 전의 소란을 잊는 중인데, 바로 그 문제의 아주머니께서 우리 앞에 가면서 단풍나무 가지들을 똑, 똑 꺾고 있질 않겠습니까? 보다 못한 장로님 한 분이 점잖게 충고를 했습니다. “왜 가지를 꺾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아야 하는데, 꺾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런데 아주머니의 대답은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뭐가 어때서요? 너무 예뻐서 우리 목사님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분은 나름대로 목사님을 사랑하는 (?) 교인이었습니다. 그 단풍나무 가지를 받아드셨을 목사님께서 사연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단풍잎들도 불과 며칠 후에는 낙엽이 되어 땅에 눕습니다. 문제는 단풍이 낙엽이 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단풍이 절정에 달할 때 어느 산자락에서 있겠다는 결심이 무산되고 맙니다. 언제 지나갔는지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시간은 겨울로 훌쩍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벌써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은 지난 10월 말에 영락수련원에서 남한산성 단풍 숲을 거닌 것입니다. 그마저 없었다면 올 가을이 너무 삭막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단풍철이 짧은 것을 한탄하던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단풍보다 낙엽을 사랑하라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단풍은 짧지만, 낙엽은 길어 이듬해 봄까지 이어지고, 단풍은 드물지만, 낙엽은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잎은 낙엽이 되는 순간 죽은 게 아니라, 낙엽이란 이름으로 살면서 푸를 때보다, 단풍일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엽은 그 속삭임을 듣는 귀가 있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살아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낙엽을 사랑하는 마음은 겨울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겠지요. 올해도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낮은 기온과 매서운 바람이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인생에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계절을 맞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 가정과 사회, 한국 교회는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마지막 빛을 발산하는 가을일까요? 아니면 겨울로 접어든 것일까요?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겨울을 사랑하는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겨울도 우울한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소중하게 다가올 것이고, 고난이란 추위와 함께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겨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여 오신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절기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추운 겨울에 오셨습니다. 인생이 움츠러들 때, 단풍이 사라지고 낙엽밖에 남지 않은 것을 슬퍼할 때, 한 사회와 교회들이 신음할 때, 그 고통의 겨울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겨울, 온 영락의 가족들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겨울을 이기고 축복의 봄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만날**

일상에서 제자답게

언제 어디든 부르시면 달려가요, 기독미용인

머리하는 미용 일은 삶의 현장에서 고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머리를 하면서 “고객들이 자신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신상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면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서로 기도도 나눈다”고 한다. 또한 예수 제자로서, 영락교회 교인으로서, “예수님과 영락교회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으로나 가격이나 서비스에서 제자의 마음으로” 미용 일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고위층이나 누구나 머리는 자라고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누구나 때가 되면 자기 머리를 미용인에게 맡기는데, 바로 이때가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 주님이 기독 미용인에게 맡긴 소중한 전도 기회라고 한다. 기독미용인에게는 정년이 없다고도 한다. “나이를 먹어도 가 위만 있으면 쓰임 있는 사람”으로, 언제 어디든 부르시면 달려가서 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일상에서 제자답게’, 이달에는 영락 기독미용인의 이야기를 모아보았다.

취재 김희정 객원기자 사회 박근우 객원기자 사진 조덕일 객원기자



왼쪽부터 흥숙희 권사(중구·용산교구), 이산옥 은퇴권사(강동·송파교구), 신경자 은퇴권사(종로·성북교구), 윤윤숙 권사(마포·영등포교구), 오순향 은퇴권사(동대문·중랑교구), 한금자 은퇴권사(강북·도봉교구), 박근우 집사(마포·영등포교구)



사회 박근우 집사 : 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앉은 순서, 오른쪽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자 은퇴권사 : 영락 신학교를 졸업하고 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교부에서 미용부를 모집할 때 1기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 봉사를 하려니까 너무 부족해서 미용 봉사를 배워서 자격증을 따고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순향 은퇴권사 : 선교부에서 미용 팀을 만든다고 할 때 미용 팀을 창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용을 잘하는 분을 선생님으로 모셔서 교육생을 모집했습니다. 교육시킨 사람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윤숙 권사 : 청년부 하기 봉사에서 미용으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미용선교 팀을 만들어야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교육자로 오순향 권사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미용선교 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신다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자 은퇴권사 :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사업을 그만두면 꼭 봉사하며 전도하며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IMF 때 미용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산옥 은퇴권사 : 저는 어려서부터 미용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모아서 해봤지만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니 할 수 없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주보에 미용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3기로 졸업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홍숙희 권리사 : 2008년 8기 교육생으로 회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머리 자르는 것을 배우게 되었지만 봉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회 : 특별히 미용 팀을 만드신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순향 은퇴권사 : 임영수 전임 목사님께서 하기 봉사로 교육을 제안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넘어서 1997년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을 계기로 지금까지 많은 제자를 양육하여 해외와 국내에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곳 봉사를 가보면 미용 봉사자가 부족해서 추진되었고 제자 양육이 잘되었기 때문에 해외 30개국 정도에 12~13명 정도 미용봉사 팀이 다녀왔고 지금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사회 : 봉사를 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한금자 은퇴권사 : 미용 봉사를 하다 보면 집에서 소외된 어른들이 오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방’같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역할을 합

니다. 머리를 하게 되면 마음도 다듬어지고 걸음 걸이도 달라지고 사회가 밝아집니다. 개인적으로 2008년도에는 봉사 5,000시간을 달성하고 봉사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양천구에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순향 은퇴권사 : 국내에서 꽃동네나 정신병원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봉사했는데 해외에서도 우리의 봉사로 전도문이 열려서 새로운 신자가 왔다는 연락이 선교사님을 통해옵니다. 우리는 10여 명이 전도를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니 꺼려져 오려고 하지 않았다가도 미용이라는 도구가 있으니 100~130명씩 궁금해 하며 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온 뒤 새신자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보람 있습니다.

윤윤숙 권사 :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사실 봉사를 할 때 돈을 안 받는 것이 더 보람이 있고 기술 발휘가 잘되는 것 같아요. 봉사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 사모님께서 양말도 못 뺄게 할 정도로 저를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미용 봉사를 통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물어보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능력으로 일도 더 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경자 은퇴권사 : 10년도 더 된 일인데 캄보디아로 봉사를 갔을 때 불도 안 들어오고 마을의 환경이 열악해 길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릿니를 없애려고 DDT를 뿌리면서 머리를 깎아줬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봉사 참 잘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고 눈에 선하죠.

이산옥 은퇴권사 : 미용 봉사로 하기 봉사를 가면 지역에서 교회 문턱도 안 밟아본 사람도 컷트나 파마를 하려고 옵니다. 그분들이 파마를 하는 동안 청년부에서 전도를 하죠. 그런 중에 쪽을 진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머리는 자르고 싶지 않은데 파마는 하고 싶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긴 머리 그대로 파마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에 처음 하시는 파마를 제가 해 드려서 보람 있었습니다.

홍숙희 권사 : 미용부를 통해 봉사를 가면 저희가 미용 봉사를 하는 동안 청년부에서 20~30분 동안 부지런히 복음 제시를 합니다. 복음과 같이 전해지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사회: 봉사를 하는 동안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홍숙희 권사 : 하기 선교를 갈 때가 더운 때라 날씨와 띠약볕을 견디는 것이 힘들다면 힘든 점입니다. 숙소도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감안하니 참게 되고 잘 견디라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니 잘 다녀오게 됩니다.



이산옥 은퇴권사 : 하기 선교를 다녀오면 더워서 땀띠가 납니다. 다녀오고 피부과를 다닐 정도이니 가끔 아이들이 반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야지’하는 사명감으로 갑니다. 다녀오면 할 일을 한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신경자 은퇴권사 : 불러주시는 게 더 고마운 일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하니 발바닥이 조금 화끈거리고 고생은 되어도 힘들지 않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윤숙 권사 : 어떤 하기 봉사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파마를 해 줬더니 다음 날 아침에 손이 부은 거예요. 모르고 결혼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반지를 빼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주도에 간 적도 있는데 열 때문에 두드러기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만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오순향 은퇴권사 : 국내에서는 정신병원 같은 곳을 가면 일을 못하게 손을 마구 쥐어뜯어서 피가 날 때도 가끔 있지만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견딥니다.

제일 힘들었다면 외국에 나갈 때 통역이 적으니 언어까지 배우고 ‘짧게 할 건지 길게 할 건지’ 묻는 말도 3개월씩 배워야 해서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는 그 나라 말이 짧지만 서툰 언어로 인사하고 파마를 통해서 이슬람 지역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여는 데 도구로 사용된 것이 힘들었지만 보람이었습니다.



한금자 은퇴권사 : 어려운 점을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건 저녁이건 부르시면 갑니다. 커트를 할 때 머리카락 먼지를 우리가 먹게 되니 다만 위생

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나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지든 어려운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은 일이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외길을 걸어갈 때 가나안을 바라보며 힘들지만 참고 사역을 감당했던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봉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된 점은 무엇입니까?

한금자 은퇴권사 : 저는 제 머리카락을 제가 자릅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컷트도 하니 자랑스럽고 영광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밑바닥의 사람이나 고위층이나 누구나 머리는 자라고 정리해

야 합니다. 반듯하고 예쁘게 우리 미용 팀이 하는 일은 보람 있고 선교하는 데 좋은 도구로 쓰이니 자랑스럽습니다.

오순향 은퇴권사 : 미용 기술을 일찍 배우고 미용실도 운영했습니다. 25년이 지나서야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도구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쓸 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술로 나를 쓰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해외 선교에도 30회나 참여했고 미용부에서 많은 기술자들을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눠서 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데 쓰임새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이 생기고 일을 하니 인정도 받았습니다. 고객을 자연스럽게 대하게 된 것이 변화된 점입니다.

신경자 은퇴권사 : 봉사를 통해 변화된 것이 많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겁고 은혜 받고 오는 것 같아 갈 때보다 올 때가 더 즐겁습니다.

이산옥 은퇴권사 :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보니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몸도 건강

해지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홍숙희 권사 : 여러 봉사를 하게 되면 이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봉사 자체가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것이 변화입니다.

사회 : 미용 봉사를 통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홍숙희 권사 : 봉사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팀에서 봉사할 때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의 초점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산옥 은퇴권사 : 항상 건강해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으면 합니다.

신경자 은퇴권사 : 건강해야 하고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윤윤숙 권사 : 봉사를 하며 앞으로의 삶에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2의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경우 먹고 사는 이유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기쁨으로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이를 먹어도 가위만 있으면 쓰임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했습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오순향 은퇴권사 : 미용봉사 팀의 젊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양육이 잘 되어 언제 어디든지 부르시면 달려가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 설악산수양관에서 미용봉사 모습 | 사진 김한기 기자

한금자 은퇴권사 : 주님께서 많은 사람 중 12제자 를 선택하신 것같이 소수지만 복음을 위해 복음의 특공대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사회 : 미용 팀의 사역과 봉사의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숙희 권리사 : 현재 26명의 회원으로 15개 봉사처에서 한 달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 봉사와 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악동교회, 공주 원로원, 안식관, 하나원, 백병원, 동부시립요양원, 은빛요양원, 굿모닝요양원, 웰리스 요양원, 해븐리재가노인복지, 애니아의집,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청년부 하기선교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와 연관된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대상으로 봉사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 : 삶에서 실천하는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가요?

윤윤숙 권리사 : 미용실에 오시는 고객들 중에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교인으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마음으로나 가격이나 서비스에서

예수 제자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하기 봉사를 가서 미용 봉사를 하게 됐고, 미용선교 팀 강의와 학생들의 직업체험 교육까지 제게 주어진 많은 은혜로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는 고객들이 자신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신상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면 그분들이 감동을 받으시고 서로 기도도 나눕니다. 말씀을 들어 드리고 서로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고, 그럴 때 안 믿는 분들은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스스럼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걸 관심 있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그분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생활 중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 미용 봉사를 통한 일상 중에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만남**

본 좌담회 동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을 도와주신 분들

김화숙 집사, 안진영 집사, 임광철 집사, 이진영 청년

송년특집 //

거룩한 공회와 예수 탄생

-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基礎)한
온전한 영락교회
-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그가 오신 이유, 우리가 살아갈 이유
- 거룩한 공회와 참된 생활
거룩한 공교회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基礎)한 온전한 영락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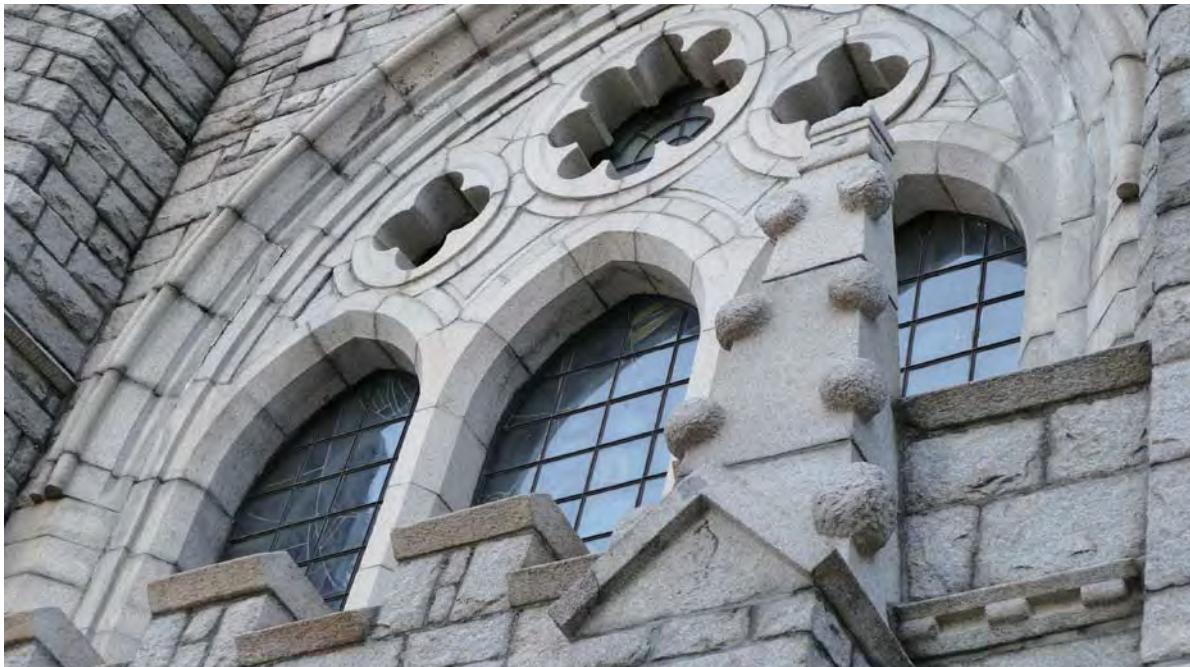
오늘날 ‘교회(敎會)’라고 하면 주로 십자가 종탑이 있는 교회 또는 교회라고 간판을 붙인 건물을 연상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의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건물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신앙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주(主)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태균 목사
강서·구로·양천교구
경조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의 시작은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일정한 한 장소를 지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회막을 세우셨습니다. 이 회막이 최초의 광야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광야교회는 왕정시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란 용어가 신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중요한 신앙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며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으로 ‘교회’란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교회’란 결코 건물의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란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基礎)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교회의 머리(엡 1:22)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의 몸을 이루시고 친히 교회를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몸(엡 1:23)으로 그리스도와 종속적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하는 상사에게,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머리 되

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인 신앙공동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다’라는 의미는 교회의 일치와 단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야 하듯, 예배, 기도, 봉사, 전도, 구제, 교제, 친교, 선교, 자치기관 활동 등, 지상의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일치되어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그럼 신앙을 기초로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만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온전한 교회일까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건물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무교회주의(無教會主義)라고 합니다. 그는 예배당을 짓지 않고 건물과 형식을 무시하고 사람들만을 중시하며 아무 곳에서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 한국 교회 가운데 꽤 큰 교회 가운데서도 예배당 없이 건물을 짓지 않고 운동장이나 학교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교회의 두 번째 의미로서의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역시 교회를 가리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롬 16:5, 롬 16:23, 골 4:15, 롯 1:2). 즉 유형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집이 교회인데, 이 ‘집’ 건물이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함께 집안에 갖추어져 있어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 이 두 가지가 합



쳐져야 완전해지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형의 교회만 추구하고 무형의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무형의 교회만 추구하고 유형의 교회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인 성전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것도 중요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정해진 한 곳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고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곳을 소중한 모임의 장소로 정하여 함께 모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함께 고백하며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이런 점에서 영락교회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온전한 교회입니다. 먼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피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함께 손수 교회의 벽돌을 하나하나 짚어지고 몸소 나르며 아름답게 꾸미고 세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락의 선배들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순교하신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경제적 형편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먼저 세우기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에서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터전인 영락교회입니다. 특별히 영락교회는 지형적으로도 서울의 가장 중심인 종구에 위치하여 서울, 경기권으로 흩어져 있는 온 교우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간절한 마음뿐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삶의 중심에 놓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락의 교우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함께 고백하며 앞으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증거하는 복음의 중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초대 교회는 서로 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나눌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갔습니다. 영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질타와 비난들을 보면서 영락교회가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온전한 교회로 더욱 사랑받고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만남**



그가 오신 이유, 우리가 살아갈 이유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예수님의 ‘생일’이라 표현하며 다양하게 기념하면서 모두가 즐긴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2000년을 기념한다며 케이크를 자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생일은 당연히 태어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태어난 사람이 축하의 대상이 되어 많은 선물을 받고 모든 영광이 그에게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생일’이라 함은 태어난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고, 태어난 사람을 위한 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축복의 대상이 아니었다. 잘 자라서 세상 가운데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큰 인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크리스마스의 대상과 목적은 정작 다른 곳에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성경의 심장(the heart of the Bible)”이요 “가장 축소된 복음의 모형(the Gospel in miniature)”이라고 표현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크리스마스의 이유와 목적이 가장 분명히 요약된 본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이유가 되



김용신 목사
노원교구
홍보출판부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크리스마스를 주셨으니…”라고 바꾸어 써도 무방할 것이다. 목적은 바로 다음에 이어진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크리스마스의 이유는 아기 예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세상에 있었고, 크리스마스의 목적은 태어난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완전한 상태로 되돌리셔야 했던 대상인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 그리스도로서 감당하신 역할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으로서

가 아니라 중보자(Mediator)로서의 역할이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다. 즉, 죄가 있다면,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진단하신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인류는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 형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또한 끝없는 영원한 고통이다.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영원한 고통이기에,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 자신이 먼저 모순에 빠지므로, 하나님은 속죄의 방법을 성경에 기

록해놓고 있는데, 그 속죄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 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롬 6:23).
- ②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사한다(레 17:11).
- ③ 죄를 지으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
- ④ 만일 자신이 죽기 싫으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피 값을 지불하고 죽으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죄 짓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대신 죽을 수 있는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 대신 죽을 수 있는 짐승을 허락하셨다. 흄 없는 짐승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을 죄인도 살려주셨다. 아무 짐승이나 죽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짐승이라야 가능했다. 주로 소, 양, 염소, 3가지였고, 그중에서도 양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특히 흄 없고 완벽한 어린양이어야만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깨끗한 양을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은 제사장으로부터 "당신의 죄는, 이 양의 피 때문에 용서받았소"라는 용서의 선언을 듣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한 시간도 안 되어서 또 죄를 짓는다. 그러면 또 다시 양을 잡아야만 한다.

한번 상상해보자. 얼마나 많은 양이 희생당하고 소비되었겠는가? 짐승을 잡을 때는 여기저기 피가 튀고 피비린내가 난다. 그러나 아무리 짐승을 잡아 죽여도, 죄 지을 때마다 매번 끌고 가야 했다. 더구나 죄 짓는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매번 피 흘리지 않아도 되고, 단 한 번 피 흘리고 죽는 것으로 영원히 그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피를 찾으셨다. 단순히 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마음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피를, 하나님을 찾으셨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갖춘 기가 막힌 피가 천하에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한 피는 단순한 짐승의 피여서는 안 되고 죄 지은 인간의 피도 안 된다. 인간은 모두 다 죄가 있기에, 죄가 없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기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려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다. 죄가 없어야 하고, 또한 사람이라야 죽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역할이었고, 구원을 위한 매개체, 즉 중보자로서 사역이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인간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신 어린양… 바로 예수님의 이 중보자 되심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본질적 의미를 항상 여기에 둘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크리스마스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고 마냥 앉아 계셨다면,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소나 양을 죽여 가면서, 그것조차도 부분적으로 밖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쌍한 존재였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적극



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크리스마스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의 기회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소원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다. 행동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소원을 두고 불드시면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반드시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내고야 마신다. 하나님의 그 의지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지속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크리스마스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목적이다.

God for Us!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이 사실 하나님으로도 충분히 설렐 수 있어야 한다. 그저 아기 예수의 탄생

정도를 축하해 놓고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의 약속, 여러 좋은 공연과 발표회, 서로 교환하는 선물 등으로 설레고 기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날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위한, 결코 취소될 수 없었던 절대적 사건이었음이 마음 깊이 새겨짐으로 인한 설렘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

붕어 없는 붕어빵, 가래 없는 가래떡, 빈대 없는 빈대떡, 곰 없는 곰탕, 국화 없는 국화빵, 엄마손 없는 엄마손 파이, 칼 없는 칼국수, 쥐 없는 쥐포가 존재하듯, 점점 ‘Christ’ 없는 ‘Christ-mas’로 바뀌어 져 가는 아쉬움이 매년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이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제외하지 않고 늘 중심에 모시는 멋진 크리스마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을 기억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만날**



거룩한 공교회를 찾아서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인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은 이를 잊은 채 무기력한 모습, 왜곡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 거룩한 공교회의 비전과 부르심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지난 11월호에서는 기독교 초기시대의 니케아신경의 고백에서부터 그 의미를 찾아보았고 이어서 중세 암흑기에 종교개혁자들의 고백 속에서 다시 거룩한 공교회의 비전이 회복되었음을 보았다. 이번 12월호에서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과 그 실천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려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주일신앙으로 축소된 신앙을 다시 거룩한 공교회, 즉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도전이 되었으면 한다.



백성우 목사
교육전담
강동·송파교구

거룩한 공교회-현대 그리스도인을 위한 재확인

서구 교회는 1910년 역사적인 에든버러 선교대회에서 거룩한 공교회적 연합을 통해 열정적인 중언공동체로서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선포와 열망을 고백하였고, 나아가 선교의 긴급성 강조와 이를 위한 전 세계적인 선교적 연합의 요청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기대와 열망과는 달리 서구 사회는 1차 세계대

전을 겪으면서 그 선교적 열정이 교회에서 점점 식어 갔으며 이후 지난 한 세기 동안 선교지형의 변화와 마주하며 새로운 선교적 의미를 다시 찾고자 노력해 왔다.¹ 이러한 노력들 중 특히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 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현대사회에 맞게 재확인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존 스토토 목사이다. 그의 이러한 설명과 요청은 거룩한 공교회적 삶의 현대적 모습을 그려준 것이라 하겠다. 그는 자신의 책 ‘온전한 그리스도인’에서 이를 잘 보여준다.

존 스토토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의 헌신은 부분적이지 않고 전체적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평일에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 이러한 사람의 삶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사적인 영역이나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온통 번체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다.”²

영국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런던 도심의 All Soul’s Church(모든 영혼들의 교회)의 담임목회자였던 존 스토토(J.R. Stott, 1921–2011)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모습을 다섯 가지로 알려준다. 첫 번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자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복종시키는 자들이다.”³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은 ‘직업과 소명’의 통합을 건강하게 이루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섬김의 자세로 일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삶을 구성하는 일이란, 그 자신에게 “성취를 줄 뿐 아니라 공동체에는 유익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져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에너지를 쓴 것이다.”⁴



1980년 영국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인 의대생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강연한 후 존 스토토 모습

1. 한국에큐메니컬 학회, 『에큐메니컬 선교학: 변화하는 지형과 새로운 선교개념』(대한기독교서회, 2018, 30–33쪽).

2. J. 스토토, 『온전한 그리스도인』(IVP, 2014, 9쪽).

3. J. 스토토, 8쪽

4. J. 스토토, 37쪽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J.B. 필립스의 말처럼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 좁게만 보는 경우가 많다. 성경의 하나님은 종교적 삶에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온 영과 육체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생활 전체인 일과 결혼과 가정과 문화와 국가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거라는 삶의 소명과 함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사회가 그리고 세상이 망가지고 부패해 갈 때 이를 책임지고 감당하는 부르심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책임을 지는 자들이다.⁵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네 번째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의 악에 젖어들기보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내적 정화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상의 악을 이기는 경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바 더 큰 의인 마음의 의를 품는 것이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더 넓은 사랑으로의 부르심이다. 이는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의요, 더 고상한 야망으로의 부르심을 사는 것이다.⁶

존 스토퍼트가 제시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다섯 번째 모습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다. 서구 교회에서 선교적 열정이 점점 식어버리고, 제국주의적 선교로 인한 실패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나아가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선교 무용론까지 주창하는 이들이 교회에 등장하는 것을 일찌감치 마주했던 존 스토퍼트 목사는 다가오는 시대에 거룩한 공의회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바로, 구약의 하나님은 온 민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부르시고자 하셨던 선교의 하나님임이셨다는 것과, 복음서의 예수께서 세상을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성령은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선교의 성령이셨다는 것, 서신서의 교회는 “복음이 이르렀고, 그것을 받았고, 그 복을 널리 퍼뜨렸던” 선교적 교회였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경의 기독교는 이 선교적 완성을 보여주는 바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선교의 신앙임을 역설한다. 이를 통해 거룩한 공의회로서 교회의 성도,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교적 신앙으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와 역사를 품되 어느 한 가지에만 사로잡힌 편협한 품음이 아닌 성부성자성령 삼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임을 역설한다.⁷

책의 말미에 주어진 그의 제언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말한다.

5. J. 스토퍼트, 73~92쪽.

6. J. 스토퍼트, 109쪽, 122쪽

7. J. 스토퍼트, 127~140쪽.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는 안전하고, 점잔빼고, 아늑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도피적인 편협한 종교가 아니다. 성경의 기독교는 안정을 지향하는 우리의 감춰진 본성을 깊이 뒤흔들고 있다. 그 뒤흔듦은 폭발적인 힘이며, 중심에서 밖으로 뻗어 나가는 힘이다. 그것은 우리를 협소한 자기중심으로부터 끌어내고, 섬기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계로 투입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를 향한 이 혼신을 표현할 방법들을 찾아내야 한다.”⁸

세속화된 도시 뉴욕의 거룩한 공교회 리디머 교회

1989년, 미국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교회를 찾는 이가 가장 적은 뉴욕이라는 대도시에서, 그 도시가 개척된 아래 세속적이고 도시화된 이들, 지성적이나 회의적인 그 뉴욕인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뉴욕의 실 복음화율을 5% 미만에서 10% 이상으로 끌어 올린 리디머 교회 (Redeemer Church)의 사례는 우리에게 거룩한 공교회의 좋은 현대적 귀감이 된다. 리더며 교회의 성공적 사례를 궁금해하고 본받고자 찾아왔던 이들 중 어떤 이들은 그 성공의 이유를 음악의 사용, 설교자의 스타일, 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사역의 방법들과 같은 부분적인 면에서 찾고는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회를 이끌었던 팀 켈러(T.J. Keller)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리디머 교회에서 어떤 방법의 사역들을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그 방법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과 적용에 대해서 오랫동안 숙고했다. 그리고 뉴욕의 문화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열심히 공부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감수성에 대해서, 도시 중심부의 정서적, 지성적 지

8. J. 스트토, 140쪽

형에 대해서도 숙고했다. 국제적 중심 도시에서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의 효과성에 있어서, 이 숙고와 의사 결정의 특성과 과정이 그 결과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다.”⁹

이러한 과정을 통해 리디머 교회는 세속화된 도시 속의 센터처치(Center Church)로서 세워지게 된다. 센터처치란 단순히 지리적 중심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센터처치로서 교회가 갖는 중심성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되면서도 동시대의 문화 속에서 삶, 사역 및 사명에 대한 풍성한 적용점을 찾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다. 팀 켈러는 이를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하는데 복음-도시-운동이 그것이다. 도시적 삶의 자리를 외면한 복음도 아니며,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린 도시적 삶에 매몰된 신앙도 아니라, 복음에 충실하되 도시적 현대인을 향한 선교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공교회의 운동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도시 중심의 문화적 주역들과 함께 교회의 신학적 비전을 형성하며 이들을 통해 예배와 제자도 훈련, 봉사, 전도와 지역 문화로의 다가섬 등 모이고 흘어지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한다.¹⁰

모든 본질에 선 교회가 그러하였듯이 오늘날 리디머 교회는 비록 가장 세속적인 도시 뉴욕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거룩한 교회의 현대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복음의 본질에 서서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한’ 교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도적’ 교회로, 그 살아감이 세상과 분리됨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여 도시적 삶을 품어가는 ‘보편적’ 교회로, 그 속에서 사람과 문화와 삶과 복음을 통합하는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 것이다.

글을 나오며 - 거룩한 공교회의 비전, 오늘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는 개인들의 총합이 아니다. 교회는 그저 무리들도 아니다. 교회는 부르심이다.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부르심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주로 고백하며, 역사 속에서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라는 것을 각 시대 속에서 다시 고백하며 그 부르심을 감당하여 왔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를 마주하며 거룩한 공교회의 부르심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다시 그 고백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백을 살아가야 한다. 삶과 신앙이 나눠진 이분화된 모습은 한편 모순되면서도 다른 한편 쉽고 편한 신앙의 길이다. 이제 우리는 그저 편한 신앙의 길이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라는 부르심 앞에 부단히 서며, 이를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고자 애쓰는 노력과 기도와 헌신 앞에 서야 한다.

9. 팀 켈러, 『센터처치』(두란노, 2016, 22-23쪽).

10. 팀 켈러, 33-35쪽.



소그룹 모임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염려한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과연 세워질 수 있을지 걱정한다.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워질 때,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회복되고, 삶을 신앙으로 세워가는 역량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믿음의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성장할 것이다. 이제 이 글을 교회다운 교회를 요청하는 다음 세대 한 청년의 글로 마무리하려 한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전 세대보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Z세대(18~24세)에 속한 청년 자켈 크로우(Jaquelle Crowe)는 자신의 세대가 교회에 기대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세대의 기독교인들, 특히 나이 들고 지혜로운 세대들이 믿음이 없는 문화에서 믿음을 함께 지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가 성경적 진리를 지지하며 신념에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길 잃은 자들에게 다가가 공동체 배경에서 기르고 먹이는 교회가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¹¹ **만남**

¹¹. <http://www.circum.org/1356> 청소년, 청년 세대의 신앙 일깨우기 (Study finds Openness to the Gospel in Generation Z)

영락 명동노방전도대, 청년기자가 만나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영락교회 젊은이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영락 지금! 이번 12월호에는 특별히, 명동노방전도대를 만났습니다. 영락교회 그 어디보다 청년의 손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든 곳이지만, 노방전도에 대해 궁금하다는 청년들의 요청을 받아 특별히 진행하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노방전도의 실상은 어떤지, 영락의 전통을 이어 수십 년을 애써오신 분들의 전도가 청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가는 열매로 맷어질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기획 우대권 편집위원, 오승현·목진경 기자 사진 유승현 기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락 명동노방전도대 회장을 맡고 있는 안광숙 권사입니다

어떻게 노방전도를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 입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위해 일년이 넘도록 기도했죠. 그러다가 어떤 분이 지하철에서 전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함께 하게 됐어요. 3호선 대화역까지 가면서, 사람들이 의자에 모두 앉으실 정도로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앙 고백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나온 안광숙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원을 명확히 밝히면서요. 그러다가 신고가 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하철에서의 전도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아려웠죠. 나는 아직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할 열정이 있는데 여건이 허락지 않으니.

지하철에서의 전도가 멈춘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교회 앞 백병원에는 장기 환자들이 있는 병동이 있어요. 그 병동에서 환자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관리도 하고 요양도 도와주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 중 친구들에게 노방에서 전도가 하는 부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 가사십 대 후반이었을 땐데,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를 때였죠. 그렇게 명동 노방전도대에 합류하게 됐었는데, 이제 회장도 하고 있네요(웃음).



명동노방전도대 팀원들

영락교회 명동노방전도대는 어디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주일 오후 두 시에 봉사관 502호에서 모여 먼저 예배를 드려요. 예배 이후에 명동 파출소 옆, 저희가 늘 부스를 설치하는 곳이 있답니다. 건반과 무선 마이크, 앰프를 설치하고 먼저 찬양을 한 곡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가 맡은 구역으로 가서 신앙 고백을 해요.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45분 신앙 고백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렇게 하며 한 시간 정도 후에 다시 원래 자리에 모여서 파송의 찬양을 해요. 그렇게 하루 전도를 마치죠.

명동 거리가 워낙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전도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도 많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의 장소에서 한 지 오래됐어요. 워낙 전통이 있다 보니 경찰과도 사이가 좋고, 주위 상인들과도 사이가 좋습니다. 특히 부활절, 성탄절처럼 모두와 함께 나누는 좋은 날에는 백화점에서 좋은 선물을 직접 사서 일일이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위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전도하면서 열정에 불을 지펴주거나, 또는 조금 주춤하게 하는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노방전도를 보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은행원이라고 하셨는데, 길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영락교회를 찾아왔다고 해요.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부에 등록하러 간다면 인사를 했었는데, 그런 경험들은 굉장히 뿌듯하죠. 그런가 하면 전과가 있는 분을 만난 적도 있어요. 막 나와서 돈도 없고 밥도 못 먹었다며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예배에도 참석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집이 부산이라 내려가야 하지만 차비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차비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아요. 어떤 의도로 접근했는지 알 수 없고 설령 우리를 이용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 도와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속을 지언정 지나치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씨앗을 뿌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명동에서 전도하는 모습



전도지를 배부하는 모습

명동 노방전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제가 사십 대 중반에 명동노방전도대에 와서, 지금은 환갑이 넘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모두가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온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함께 할 젊은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요. 일회성 연주나 공연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진 젊은이들이 함께 꾸준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앰프, 무선 마이크, 차량 지원 등 함께 할 수 있는 분야는 확실한데 활용할만한 젊은 인력이 없어요. (편집위원에게) 주일에 한 번 나오시면 좋을 텐데(웃음).

(웃음) 지금 가장 젊은 노방전도대원의 연령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막내가 사십 대 중후반이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막내였는데 그때 제 나이도 그 정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기다리셨던 질문일 것 같습니다(웃음). 노방전도에 대해 요즘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현대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다, 또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비판을 개의치 않아요. 저희는 씨 뿌리고 물 주고 가꿀 뿐이지,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저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증거할 따름이에요. 저는 가장 많은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 노방전도라고 생각해요. 또 뿌릴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씨를 뿌려야 해요.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더욱 열심히 더욱 많이요. 저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효과 없다는 비판에 개의치 않아요. 그런 비판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 하는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바라는 점이나 목표가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저희가 전도하는 지역인 명동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노방전도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더 나아가 명동 거리가 지금은 세상 유흥의 대표지역이지만 언젠가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성소로써 일어났으면 하는 소원이 있어요. **만남**

9월호부터 문을 연 '한 권의 묵상' 섹션은 「만남」 독자들의 궁금함과 주님 사랑의 열기로 시작되었다. "당회에서 김운성 위임목사와 당회원들이 서로 추천한 도서를 독서하고 토론한다"는 소식을 독자들이 듣고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우리도 함께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나눌 수는 없는지", 이런 문의가 많이 있었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한 권의 묵상' 섹션을 운영한다.

오 할레스비의 『기도』를 읽고

노르웨이 신학자이며 영적 지도자인 오 할레스비 목사가 쓴 『기도』는 1931년에 발간된 기독교 고전 중의 하나다. 이 책에서 그는 기도에 낙심한 심령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의 법칙을 제시했고 기도의 복음을 전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 들이는 일이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어려움과 부족함에 가까이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복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다. 이럴 때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받게 된다. 우리는 '죄'라는 군에 감염되어 있는 환자로서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이르게 함으로써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자각하고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의 영이 우리의 무력함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감동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며, 의심 중에도 우리의 궁핍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게 된다.

기도 생활을 고통스럽고 실패하게 만드는 3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이루시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된 기도의 전체 조건은 불안과 염려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모두 맡기고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대해 명령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기도자(者)는 조급함으로 시기와 방법을 변경시키려고 예수님을 설득하고 명령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고 자신의 마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자기와 같이 부정하고 부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기도의 영이 도우셔서 우리가 부정한 자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품으로 안아 주신다.



박일환 장로
성남·분당 교구
갈보리찬양대 대장

우리의 영혼과 몸 안으로 느껴지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웃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중보기도 사역의 대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이웃, 주님의 일꾼들, 지도자, 목사 전도자, 설교자,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집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을 위해 거룩한 열심으로 중보기도를 드려야 한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째, 기도를 위해 마음과 생각을 예수그리스도께 집중시켜야 한다.

사탄은 우리의 육적 성품을 이용해 기도가 싫증나게 하고 현재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이유를 총동원시킨다. 그러나 기도를 위해 마음과 생각을 예수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하여, 귀를 기울여 듣는 기도가 필요하다. 잠잠히 머물러 영의 의사가 자신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은밀한 죄로 인해 생긴 괴로움과 무력함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둘째,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때 우리는 간청하며 하나님을 이기려는 기도를 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려는 사랑에 기인한다.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기도도 싸움을 요구한다. 중보기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해물은 우리의 이기적 무관심과 안일함이다. 무관심과 안일을 극복하고 중보기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열정으로 깨어 있어서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에 힘써야 한다.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심화되어 금식기도로 나타날 수 있다. 금식기도는 기도의 영과의 접촉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를 기도의 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모든 내·외적 장애물들과 싸우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끝없는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보기 쉽다. 육적인 본성에 따라 이득을 얻기 위해 혹은 큰 고통이나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의 욕구를 보인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우리는 매일의 대화에서 더욱 더 단순한 마음을 갖고, 사소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을 포함해 일상생활의 온갖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해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잊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 예수님도 세 번 기도하셨으나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받는 순간에도 순결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예수님의 참된 기도의 소원은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다.





당회 독서포럼에서 필자가 발표하는 모습

넷째,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의 표현이므로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기도의 방식은 각양각색이다. 자녀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서 소원을 아뢰는 간구의 기도, 받은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기도, 하나님 그분에 대해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기도, 매일 겪는 소소한 일을 그분께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는 대화의 기도, 마음의 모든 것을 아뢰고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말 없는(묵상) 기도가 있다.

어떻게 기도를 배울 것인가?

성결하고 능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학교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기도학교에서 교육을 감독하시는 분은 기도의 영이시다. 기도의 영은 매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자발적으로 확신 넘치는 기도가 솟아오르게 하시며,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기도자의 필요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으로써 우리를 뜨겁게 간구하는 자로 만드신다. 기도의 과목들 중에서 중보 기도가 가장 어렵고 긴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훌륭하고 신실한 중보 기도자는 많은 시련과 큰 고통을 겪은 뒤에 비로소 성스러운 중보기도를 배우게 된다.

우리 기도 생활의 모든 면을 조명해 주시는 분은 기도의 영이시다. 기도의 영의 간구는 복잡하고 분주한 생활 중에서 기도가 중심과 통일을 이루게 한다. 밤낮 자녀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에게 충분한 기도 응답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 기도의 응답은 온 생애를 통해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다.

맺음말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생활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영적 통찰력으로 조명해 주는 책이다. 책을 읽으며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 매일 스치듯이 만나는 환자들의 건강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 드리며 축복 기도를 하게 되고, 개별적이고 규칙적인 중보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우선 한 사람부터’ 지정하여 중보기도하게 된다. 두툼한 기도 수첩을 만들어 쉬지 않고 읽듯이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비록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기도할지라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연합하는 귀중한 사역임을 느끼게 되었다. 이 책은 평생 손에 쥐고 반복해서 읽으며 기도의 법칙들을 삶에 적용해 가기에 유용한 책으로 여겨진다. **만남**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



안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이한철 씨가 부른 ‘슈퍼스타’(2006)라는 노래의 가사 일부입니다. 티비 속 광고방송 배경음악으로 처음 듣게 된 노래인데, 몇 번 듣지 않았는데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는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귀와 가슴에 잔잔히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른 가수와 제목은 모를지라도 멜로디와 후렴 부분의 가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가 오랜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괜찮아 잘 될 거야’라는 가사 때문이 아닐까? 또, 이 노래의 후렴구에 표현된 ‘괜찮아’라는 짧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강의준비 중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가 평소에 주변인에게 “괜찮니?”라고 묻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지 이 세 글자가 자살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주변에 계신 분들께 한번 말씀해보시죠. ‘요즘 괜찮으세요?’



유인선 목사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교사양성반

저는 교목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前영락유헬스고등학교)]으로서 사역의 배경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남은 대부분 상담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상담의 기본은 듣는 것이기에 학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잘 견디고 있네’, ‘괜찮아’, ‘함께 고민해보자’,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이 기도하자’ 등등. 위로를 건네며 상담을 마무리 합니다.

어느 날은 여느 때와 같이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이 너의 상황과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같은 마음으로 계속 너를 위해 기도할게. 오늘 우리의 만남이 너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같이 힘내보자. 알았지?’

돌아온 학생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런데 큰 위로는 기대하지 않아요. 힘내볼게요.’

‘어? 어… 그래 잘 가. 기도할게. 파이팅. 조심히 가.’

뻘쭘했습니다. 저와 이 학생의 관계는 좋은 편이었고, 상담 중 감정다툼도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 학생의 반응은 나의 머릿속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나름 학생들에게 목사로서, 상담자로서, 인생 선배로서, 친구 같은 친근함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가 봅니다.

가짜위로

요즘 다양한 매체 가운데 일명 ‘가짜뉴스’가 퍼져나가 진실이 왜곡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가짜뉴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위로’ 또한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호기심만 자극하고 잘못된 정보만을 전해주는 것처럼 ‘가짜위로’ 역시 순간적인 위로를 주며, 때론 잘못된 위로의 정보만을 줄 뿐입니다.

실례로, 청소년 시기에 접하게 되는 흡연과 음주의 이유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로의 한 방법으로 흡연과 음주를 택했던 이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물으면 대부분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비슷한 답을 내어 놓습니다. 이것이 ‘진짜위로’가 아닌 ‘가짜위로’를 접하게 된 부작용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시대는 ‘위로’가 꼭 필요한 시대인 듯합니다. 입시, 취업, 경쟁, 날로 극악해지는 범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청소년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듯합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들에게 ‘진짜위로’가 아닌 ‘가짜위로’를 주는 이들이 많고, 이들에게 ‘가짜’가 ‘진짜’이고, ‘진짜’가 ‘가짜’라는 잘못된 지혜를 전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젠 괜찮아!

우리는 ‘진짜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진짜위로’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진짜위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 시록까지 우리에게 ‘진짜위로’가 되어주는 존재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나뭇잎으로 육신을 가지고 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가죽옷은 생명을 잃은 결과물을 나타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덮어 주시기 위해 대신 다른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위로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38년 동안 회복을 구하며 베데스다 못 근처에 누워있던 한 병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는 못 근처에서 위로를 구하며 38년이란 긴 세월을 보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병자를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곁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님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마디에 병자는 지난 긴 세월 받지 못했던 깊은 위로를 한순간에 누리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위로를 구하며 성전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간절함으로 바라보니, 베드로가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않았던 그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진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에게 진짜위로를 전해주신 분은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진짜위로’는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도 위로가 있고, 성경에도 위로가 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위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12월입니다. 깜빡깜빡하는 화려한 조명 속에서 가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말씀 안에 반짝이는 빛으로 우리에게, 바로 ‘당신(You)’에게 오신 진짜 위로자 예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래서 진짜위로를 경험하고 누리는 소중한 당신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겨울이 오기 전, 선물

- 몽골에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

도요드 소흐바트 목사님의 국적은 몽골이며, 1997년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온 후 전도를 받아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 믿음을 따라서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고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는 의정부와 금호동교회, 영락교회 몽골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최근 소흐바트 목사님은 모금을 통하여 몽골의 병원에 의료기계를 무료로 전달하였는데, 이는 의료환경이 낙후된 몽골 병원에 큰 선물이 되었다. 어떻게 모금을 하게 되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 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한다.



몽골에 이비인후과 기계를 보내주세요

소흐바트 목사님은 2016년 11월, 몽골에 가게 되었다. 이미 한겨울이 시작되어 영하 20도가 넘어 살이 에이듯 추웠고, 울란바토르의 거리는 온통 매캐한 연기로 꽉 차 있었다. 몽골은 겨울이 되면 집집마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해서 연기 때문에 대기가 탁하고 공기가 좋지 않아 호흡기 질환자가 많다. 특히, 적응력이 약한 5세 미만 어린이들이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잘 낫지 않아 폐렴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는 겨울만 되면 고질적인 악순환이 되어 병원마다 어린 환자가 넘쳐나고 복도에 줄지어 누워있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되었다.

2년 전에는 한 살 된 어린 조카도 감기에 걸려 당시 병원을



이비인후과 장비 설치 기념식. 오른쪽에서 6번째 도요드 소호바트 목사

전전했지만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 폐렴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어느 이비인후과에나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의료기계 생각이 간절했다. 그 기계만 있다면, 코와 목, 귓속까지 모니터를 통해 보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에 몹시 안타까웠다. 그래서 몽골의 낙후된 병원시설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몽골에 이비인후과 기계를 보내주세요. 저를 통하여 도와주세요!” 기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 용기가 났다.

ENT 기계 구입을 위해 모금을 하기로

그래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비인후과 장비를 만드는 공장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기계 이름은 ‘ENT Unit(Ear, Nose and Throat Unit/이비인후과 장비)’이며, 그 기계를 만드는 가장 큰 공장이 안양에 있다는 것을 듣고, 공장을 찾아가 문의해보니 그 기계의 가격이 무려 1,600만 원이었다.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큰돈이었다. 모니터를 통해 코

와 목, 귀 안까지도 볼 수 있고, 약물치료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계와 환자들이 앓는 의자까지 한 세트로 되어 있었다. “하나님, 기계는 찾았는데, 이 큰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곧 바로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나와 있는 몽골 여러분, 지금 몽골 병원에는 ENT 기계가 필요합니다. 1인당 1만 원씩 기부해 주면 몽골의 어린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맨 먼저 영락교회 몽골예배 성도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마음을 모아서 38만 원을 모았다면 봉투를 주었다. 모금액 1,600만 원을 생각하면 적은 액수였으나 너무나 기쁘고 고마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같이 기뻤다.

몽골인들뿐 아니라 CMBC도 동참

몽골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기꺼이 동참해주었고, 한국기관으로는 CBMC(한국기독실업인회)가 동참해주었다. CMBC 예배에 가서 몽골 병원에 이비인후과 기계가 필요한 것을 간절히 전했다. 그러나 CMBC에는 어려운 문제에 도움을 청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서 계속 모금활동을 했다. 다만, “하나님, 겨울이 오기 전에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만 간절히 드렸다.

오랜 기도 끝에 드디어 2018년 9월, 1,600만 원이 모두 채워져서 ENT 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CBMC 측에서 몽골 병원까지 함께 들어가서 기계가 잘 설치되도록 도와주었다. 모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일을 함께 감당해

주어 너무나 감사했다. 2016년 11월에 시작해서 2018년 9월에 끝났으니 21개월이 걸렸고, 때로는 초조함도 있었고 불안과 걱정도 있었으나, 다 지나고 난 지금은 감사만 남아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려움도 해결되고

당시 21개월 만에 ENT 기계를 구입했으나 뜻밖의 난관에 부딪쳤다. 운송료와 몽골에 들어갈 때 내야 할 세금까지 약 160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1,600만 원 모금하는 데 2년이 걸렸는데 추가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다. 곧 겨울이 닥쳐오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몽골에 기계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걱정이 앞섰다. “하나님, 추가비용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내어 다시 공장을 찾아갔다. 공장에는 ENT 기계를 몽골에 보낼 것이라고 알렸기 때문에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공장 측에서 사정을 듣고 기계 가

격에서 10%를 깎아 주겠다는 고마운 결정을 해주어서 1,600만 원에 운송과 세금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순간이었다.

지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된 ENT 기계

ENT 기계는 몽골 바그노르 시에 있는 ‘바그노르 메디컬 센터 병원(Baganur Medical Center Hospital)’에 전달되었다. 바그노르 시는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인구 3만 명의 의료혜택이 매우 낙후된 도시이다. 병원에서는 ENT 기계가 설치된 후 근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2만 명까지 포함하여 매일 50명씩 예약을 받아 무료로 치료하고 있다. 처음 기계를 설치하고 오픈하는 날, 바그노르 시장이 와서 기념촬영을 할 정도로 ENT 기계 기증은 그 지역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지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실로 귀한 기계를 무료로 선물로 받은 병원에서는 큰 선물을 보내준 영락교회 몽골예배 성도님들 앞으로 감사패를 보내주었다.

목사님은 이번 모금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퍼져 나갔을 때, 누군가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만날**

정리 문화선교팀 유혜정 권사



ENT장비로 진료하는 모습

2018 성탄 음악회, 칸타타에서 팝스타일까지,

팔색조처럼 다채롭게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노래한다



조형민 집사
관악·동작·금천교구
시온찬양대 지휘자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성탄음악회는 12월 24일 저녁 7시 30분 베다니홀에서 시온찬양대 연주로 열린다. 연말에 듣는 대표적인 음악으로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떠올릴 수 있겠으나 이번에 시온이 준비한 음악은 훨씬 다양하다. 시온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베다니홀을 찾는 많은 교우를 위해 지난 8월 복더위 때부터 수준 높고 다양한 음악을 준비해오고 있다. 성탄 절기에 한 번씩은 듣거나 부르게 될 찬송가부터 대부분 청중이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현대곡들, 정통 클래식 및 낭독자가 있는 칸타타부터 강한 비트의 팝 스타일, 무반주 합창곡부터 오케스트라와 밴드가 함께하는 대규모 음악 등 연주회 내내 우리는 팔색조 같은 스타일의 성탄 음악을 기쁨으로 노래하고자 한다.

필자는 2009년 6월 한국 교회의 자랑인 영락교회에 와서 시온찬양대와 함께하면서 교회 음악의 변화를 추구해왔다. 교회 음악의 높은 수준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음악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음악 스타일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야 하며 고전과 현대를 융합함으로써 전 연령층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노래를 통해 음악의 본질이자 크리스천 덕목 중 하나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찬양대가 성가대석이나 무대에서 기쁜 마음으로 부를 때 듣는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져서 은혜로운 시간과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감사하게도 지난 10년 동안 느낀 것은 교우들을 비롯한 청중들은 이미 교회 음악의 다양함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정해진 의식과 시간 내에서 찬양곡을 부르는 주일 예배와 달리 절기 음악회는 몇 달 동안의 특별 연습을 통해 익힌 많은 음악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이며 교우들로서는 뜻깊은 절기에 하나 된 마음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오래 감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일 것이다. 아무쪼록 시온찬양대와 함께 영락의 온 교우들이 이번 성탄 음악회를 기대해주시기 기도하며 연주곡을 소개한다.

Hodie Christus natus est

오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연주회 첫 곡은 프랑스의 현대 작곡가 프란시스 뿔랑 (Francis Jean Marcel Poulenc, 1899–1963)이 1952년에 작곡한 무반주 ‘4개의 크리스마스 시기를 위한 모테트’ 중 4

번으로 시작한다. 연주 시간은 2분으로 이번 연주곡 중 가장 짧지만, 생소한 화음과 선율, 그리고 변박자 등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연습하고 있는 곡이다. 한국 교회에서도 손쉽고 간단한 성가곡 외에 더 많은 정통 현대합창음악이 연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Magnificat

마리아의 송가

마니피캇은 성서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크리스천 찬송 중 하나다. 누가복음 1장 46~55절을 가사로 하고 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 임태에 대한 계시를 받은 후 세

례 요한을 임신한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녀가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한 데 대한 응답으로 노래한 것이다. 마니피캇은 성탄 절기 대표적으로 연주되는 곡 중 하나로, 곡명은 라틴어 가사의 첫 단어를 따서 붙였다. 많은 작곡가가 마니피캇을 작곡했는데, 이번 연주는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가 1816년에 작곡한 마니피캇(D. 486)이다.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 베이스 등 솔로 부분과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아름답게 짜여있는 이 곡은 약 9분 길이다. 전형적인 슈베르트 성가곡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 부분 (빠르게-느리게-빠르게)으로 나뉘며 긴 가사 중 일부를 생략했다.

A Festival of Carols

성탄 캐럴 페스티벌

친숙한 찬송가와 오리지널 곡이 잘 배합된 성탄절 칸타타로 남녀 두 명의 낭독자와 색채감 있는 오케스트라 반주가 성탄 절기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약 30

분가량 길이로 7개 악장 동안 청중들은 감상뿐 아니라 함께 부르기도 하면서 칸타타 연주에 참여한다.

순서 : 오프닝 메들리 (합창) / 평화의 약속 (낭독/합창) / 마리아의 찬가 (낭독/소프라노 독창) / 구유 메들리 (낭독/합창/회중) / 천사들의 노래 (낭독/합창) / 동방박사 세 사람 (낭독/합창) / 캐럴 메들리 (낭독/합창)

A Mad Russian's Christmas

매드 러시안의 크리스마스

오케스트라와 밴드가 함께 연주하는 기악곡으로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음악을 주로 인용해 트랜스 시베리안(Trans-Siberian)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다. 일렉트릭 기타까지 가미한 현대적 색채로 편곡된 클래식 음악의 신선힘을 경험할 수 있다.



2016년 11월 27일 베다니홀
교회창립 71주년 및 시온찬양대
창립 70주년 기념음악회

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다

유명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1부에 나오는 합창곡을 팝 스타일로 헤더 소렌슨(Sorenson)이 편곡했다.

강한 리듬과 쏘울풀한 반주가 특징이다. 〈메시아〉를 사랑하는 청중이라면 18세기 중반에 작곡된 음악의 현대적 탈바꿈을 즐겁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고요한 밤에

한국의 대표적 시립합창단 중 하나인 원주시립합창단
지휘자 정남규의 곡이다. 가벼운 보사노바풍 곡 중간에

서정적 느린 부분이 포함돼 있다. 정 지휘자는 최근 들어 원래 전공인 작곡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며 자작곡 음반도 제작하였는데 이 곡은 시온찬양대 위촉으로 태어났다.

One Child

한 아이

유명 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크리스마스 앨범으로 만들고 노래한 이 곡은 남녀 솔로 두 명과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밴드가 함께 연주하는 팝 발라드 스타일로 핵

심 메시지 “한 아기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네. 성탄 아침 모든 왕 중 왕이 태어나셨네(One Child can change the world. Christmas morn' the King of all kings was born)”를 서정적이면서도 파워풀하게 선포할 것이다.

Emmanuel Medley

임마누엘 메들리

연주회의 마지막 곡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는 음악회 컨셉트에 맞게 찬송가 ‘곧 오소서, 임마누엘’과 작곡가 Michael Smith의 ‘Emmanuel’, 그리고 마지막으

로 찬송가 ‘저 들 밖에 한밤중에’를 메들리로 만들었다. 오케스트라와 밴드, 합창이 드라마틱한 도입부 후 업비트와 담김음으로 빨라지다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구주 예수 탄생이 임박함을 드라마틱하게 선포할 것이다. **만날**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12월의 영락영화



정복자 펠레 (Pelle the Conqueror, 1987)

감독 : 빌 어거스트

주연 : 펠레 베네가드, 막스 폰 시도우, 비욘 그라나스

상영시간 : 2시간 30분 등급 : 12세이상관람가

(상)2일
(하)9일



19세기 덴마크 이민 노동자들의 삶을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다.
스웨덴 소년 펠레는 아버지와 함께 직업을 찾아 이주한 덴마크의 한 농장에서 정착한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로 알았던 펠레는 새로운 환경에서 세상을 배워간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악랄 중독자가 된 농장의 안주인과 작업 감독 해리에게 대들다가 죽은 에릭을 두고, 점차 노쇠해지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와 함께 더 넓고 새로운 세계로 나갈 결심을 한 펠레는 농장에서 도망칠 결심을 굳히지만 안정된 생활을 바라고 주저앉은 아버지와 결국 헤어진다. "나는 이미 늙고 약하지만 너는 어리다. 너는 언제라도 세계로 나가 정복할 수 있다." 열세 살의 펠레는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기 앞에 펼쳐진 미지의 세계로 나선다.



(상)16일
(하)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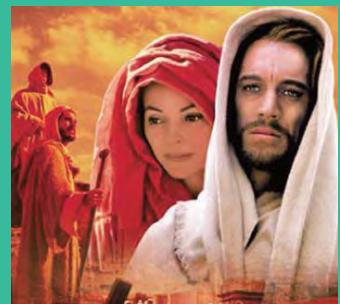
위대한 생애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1965)

감독 : 조지 스티븐스

주연 : 막스 본 시도우, 마이클 앤더슨 주니어, 찰튼 해斯顿

상영시간 : 3시간 19분(상: 1시간 45분, 하: 1시간 34분) 등급 : 전체관람가



세 명의 현자(賢者)가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들을 인도한 별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머물러 세 동방박사는 구유에 �人为 애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다. 유대왕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왕은 두 살 아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예수의 가족은 이집트로 피신한다. 이후 헤롯왕이 죽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온 예수는 성령에 이끌려 사단의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한다. 예수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긴 후,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한다.



스크루지 (Scrooge, 1970)

감독 : 브라이언 데스몬드 허스트

주연 : 알라스테어 심, 캐슬린 해리슨, 머번 존스

상영시간 : 1시간 28분 등급 : 전체관람가

30일



스크루지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오직 일과 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수전노 같은 노인이다. 스크루지는 성탄절이 사업에 방해가 된다며 못마땅해 하고, 자신에게 빚진 사람이 빚 갚을 날짜를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차갑게 거절한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직원 크리쳇에게 줄 성탄절 휴가조차 아까워한다. 홀로 식당에서 쓸쓸히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든 스크루지

에게 7년 전 죽은 동업자 제이콥 말리의 환영이 찾아오며 이야기는 전개된다.



사랑부 20주년 기념

‘봉어빵의 비밀’을 공연하다

“발달장애를 넘어 …… 1년가량 연극연습, 기적을 무대에 올리다” 지난 10월 23일자 국민일보(우성규 기자)가 “영락교회 장애인 교회학교 사랑부 20주년 기념 연극과 행사가 열렸다”면서 전한 기사의 머리글이다. 그 기사의 일부를 발췌하여 교우들에게 소개하고, 이어서 이 공연을 연출한 류혜선 집사의 후기를 게재한다.

대사는 한 음절씩 끊어졌다. 시선도 객석의 한 지점에 고정됐다. 몸짓 역시 어색해 박자를 놓치기 일쑤. 그래도 이들이 무대에 선 것 자체가 기적이다. 장애, 그 약함이 축복이었다.

지능 운동 언어 자폐 등 발달장애를 가진 이 교회 사랑부 학생들이 배우로 출연했다. 1시간여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1년가량 연습과

준비가 필요했다.

사랑부 윤재식 지도권사는 “보통 두세 번 반복하면 외울 대사 한마디를 이 친구들은 스무 번 서른 번 되풀이해야 했다”고 말했다. 발음 교정이 제일 어려웠다. 쉽게 지치곤 하는 친구들, 돌발 행동으로 주변을 당혹스럽게 하는 일도 잦았다. 그럼에도 임평호 지도목사는 “처음 사랑부



연극을 마치고 선생님들과 함께 | 사진 원종석 기자

에 와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던 학생이 지금은 연극 안에서 대화를 소화해 내며 연기를 펼친다”고 했다. 자기 통제가 어려운 친구들이 스스로 무대에 서기까지 학부모 교사 목회자의 땀과 눈물, 사랑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랑부다.

연극은 난치병에 걸린 동생을 살리려는 언니의 이야기다.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처럼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과 겪는 에피소드를 다룬다. 언니는 국회의원과 재벌 회장, 방탄소년단에 필적할 ‘방콕소년단’ 등을 따라다니며 동생을 낫게 할 방법을 묻지만 외면당한다. 나중에 예수님이로 밝혀지는 봉어빵 장수가 클라이맥스에서 이렇게 말한다.

“왜 동생이 아파야 하는지 물었지요. 왜 사람들이 장애를 겪는지 물었지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돈과 권력을 믿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아픔이 있고 약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약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약함이… 축복인 거죠.”

이날 사랑부 학생 53명과 교사 77명, 학부모 30명은 함께 나눠 쓴 신구약 성경 필사본을 교회에 기증했다. 한 글자 쓰는 데 온 힘과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학생들이 교사 학부모와 삼위일체가 돼 지난 4월부터 5개월에 걸쳐 완성했다. 김운성 목사는 “건강한 사람 끼리만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며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 곁에 머물렀던 예수님 손길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만남**

글 제공 국민일보



베다니홀에서 지난 20일 연극 '붕어빵의 비밀'을 선보인 사랑부 학생들

'붕어빵의 비밀' 공연을 마치고



류혜선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사랑부 교사

사랑부 20주년 기념연극 준비를 시작한 2018년 1월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임평호 목사님한테 대본을 받아들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구상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혈액암을 진단받고 수술하게 되었으니까요. 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하신 어머니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뜻은 무엇일까? 이제 출발선에 있는 이 연극을 함께 할 수 없는 건가? 그래, 다 내려놓으라시면 내려놓고 하라고 하시면 해야지!’ 생각하고 병원을 오가며 숨 가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작진은 참으로 바빴습니다. 대학부 친구의 도움으로 ‘구원 열차’ 유통을 배우고, 대학로에서 배우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붕어빵을 어떻게 만들까? 천사의 날개는 달까 말까? 각 장면의 효과음은 무엇으로 할까? 간식은 무엇을 살까?” 함께 고민하고 의논했던 수많은 일이 하나하나 추억이 되어 떠오릅니다. 베다니홀 공연의 경험을 전하며 조언도

해주고 함께 준비해 준 교회 문화선교팀 선생님들도 사랑부 식구와 다름없었습니다. 새로 사야 할 소품도 집에 있는 것을 가져와 활용하는 알뜰하신 권사님들의 모습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사랑부 친구들도 열심히 잘 따라 주었습니다. 가정에서 대사를 외우게 하려고 매일같이 대본을 펼쳐서 반복했지요. 연극연습을 즐거워하고 선생님들과 친해졌습니다. 간식 먹을 때나 연습을 마칠 때마다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주인공인 붕어빵장수를 맡았던 형제는 허리 통증이 재발하여 두 달 가까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인 천사 역할을 맡았던 형제는 학교 장애인 운동선수라서 함께 연습할 수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또 모여 있다가도,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면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은 날은 도저히 대사를 연습할 기분이 되지 않아 다른 친구들을 두고 그냥 집으로 귀가시켜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으로 받은 사랑부 선생님들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친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연극 당일, “저 못하겠어요.”하고 떼를 쓰면 큰일이거든요. 여러 선생님이 달래도 화가 풀어지지 않을 때는 정말 ‘아버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도움도 한몫을 했습니다. 천사 옷을 만들기 위해 동대문시장에서 원단을 고르고, 재봉틀을 가져와 한집에 모여 밤샘작업을 하고, 직장 일도 뒤로 하고 무대 배경을 만들고, 미술이나 영상 작업을 해야 할 때는 장성한 자녀들을 설득하여 주님의 일에 동참시켰습니다.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거나 달려가 사정하기도 하면서 안팎으로 하나 되어 모든 손길을 모았습니다.

사랑부 친구들은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매우 즐겼습니다. 재미있는 일은, 실수는 오히려 긴장한 선생님들이 했고, 친구들은 연습 때보다 담대하고 더 훌륭하게 잘 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연습하는 내내 느끼고 감사하며 때론 눈물짓고, 때론 박장대소하며 연습했습니다.



사랑부 학생 및 학부모가 교사들과 함께 5개월간 필사한 신구약 성경을 김운성 위임목사에게 기증하는 모습.

어머니의 항암치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딸의 빈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이 늘 그 손을 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연 날인 10월 20일 아침에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라는 찬양을 들으며 교회로 향할 때의 벅찬 감사를 오래도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부의 작은 손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큰 역사를 늘 찬양합니다. **만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박인숙
집사
인천교구
고등부 교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 거룩한 세대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가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반기독교적 정서로 가득하고 입시 체제의 무한경쟁에 노출되어 세상 기준에 따라 살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짓 희망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하고 거스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여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한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학생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학생들이 고등부 예배를 통해 복음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공부와 신앙의 훈련을 착실히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며 주의 자녀답지 못한 생활을 할 때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궁휼하심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짓과 욕심, 이기심을 버리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친구의 권유로 오랜 시간 교회 생활하며 지내 왔지만 여전히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냉랭한 가슴으로 돌아가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위로를 받으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현혹되기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진리이시며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삶의 궁극적 목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주님, 바쁠 때 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놓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즐거워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소서.

영적 삶의 기초가 세워지는 중요한 학창시절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인 친구들과 영적 멘토 선생님과의 바른 만남으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도록 인도하소서.

인생에서 두려운 풍파와 맞닥뜨릴지라도 이미 승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성실과 공의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모습이 주의 손에 맡겨질 때 다듬어져 가고 앞으로 펼쳐질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세상 가치로는 미련해 보이는 집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학생들이 많아져 교회에서만이 아닌 일상의 삶에서도 주의 사랑을 실천하여 주변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당히 전하는 멋진 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남**

하나님과 대화하기

영락수련원에서

영락수련원은 영락여자신학교의 터 위에 세워졌다. 故 한경직 목사의 설립 정신을 이어가고자, 영성수련과 가족수련을 위한 공간으로 재건축되어 2014년 12월에 완공되었다. 박동진 목사(영락수련원 지도목사)와 이창민 장로(영락수련원 운영위원회 위원장)를 만나 수련원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았다.

취재 박현옥 선임기자 사진 유승현 기자



영락수련원 본관



영락수련원 박동진 목사

영락수련원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영락여자신학교가 있던 시절, 한경직 목사님께서 기도처에서 기도하신 후, 훨 채어 타고 내려오셔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보시고, 기도하고 가셨다고 들었어요. 신학교 교육과정을 보니 한 목사님의 전학이념이 담겨 있었어요. 경건과 학문, 이 두 가지를 통해 지도자를 길러내는데, 전인적인 교육과 그리스도적 인격을 함양하여 예수 닮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한 목사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기도와 노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련원의 주요 사역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크게 영성수련과 예배 및 기도, 양육과 환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성수련은 말씀묵상기도 수련과 가족수련으로 나누어집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말씀묵상기도수련에는 정기수련, 노동과 기도를 겸하는 봉사자수련, 부서나 소 단체가 기도와 부서활동을 함께하는 부서수련, 절기마다 이루어지는 절기수련, 포이메네스 영 성수련이나 포이메네스 사모수련 등의 특별수련이 있습니다. 가족수련은 교육부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가족수련과 수련원이 주관하는 가족 대상 묵상수련으로 나누어집니다.

1~2월과 7~8월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에는 정기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말씀묵상기도와 중보기도, 성찰기도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묵상 소그룹의 형태로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형태에 따라 개인수련과 침묵수련 등으로 수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수련원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주로 우리 교회 분들이 오시지만, 타 교회나 기관에서도 입소문을 듣고 많이 오십니다. 화요예배 때는 등산객들이 등산복 입고 와서 예배드리고 성찬도 받고 가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타 교회 어느 권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다녀가시고 며칠간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셨는데 수련 기간 내에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치유 받는 은총이 있었어요. 60여 년 가까이 끌어온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는 걸 본 거죠. 한 영혼이 하



영락수련원 이창민 장로



영락수련원 브니엘기도실

나님 앞에 직면하고 서서 별거벗은 모습 그대로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때와 맞아떨어져서 그런 문제들이 풀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수련원을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명상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죠.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단단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자기 부인을 하다 보면, 바닥까지 내려가서 자신의 원감정과 만나게 되는데 그 길이 내려가는 길인 것 같지만, 실은 올라가는 길이에요. 자기 부인, 즉 십자가의 길은 본질적으로 부활과 연결되니, 올라가는 길인 거죠.

수련원이 어떻게 이어지기를 바라시는지요?

수련원에 오시는 분들의 기도제목을 들어보면 힘들고 아픈 가정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족수련을 몇 차례 시도해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부 주관의 가족수련이 대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가족수련을 좀 더 깊이 있게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데,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곳이 수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원을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수련원이 성도들에게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피폐함이나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 받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경험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찾아온 성도들이 수련을 마치고 이곳을 떠날 때,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도 받고, 새 힘을 얻어 미래를 위해 꿈꾸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커커이 쓰인 기도제목을 안고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기도로 봉헌된 이곳 영락수련원이 기도의 터전, 한경직 목사님의 정신이 살아 있는 터전, 하나님의 터전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만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제4기 시부모장인장모학교를 마치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5~7)

우리 집은 세 살 된 예쁜 소녀가 있습니다. 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내와 함께 늘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함을 느끼며 좀 더 잘해주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잘해줘야 할지 잘 알지 못해 마음만 앞서곤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든 면이 너무 빨라 아들 부부나 손녀의 생각에 저와 아내가 미처 따라가지 못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손녀를 잘 양육하고 싶고, 또 며느리에게도 좋은 시부모가 되고 싶은 심정이 가득합니다.

지난 8월 시부모장인장모학교가 진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와 함께 상의를 하여 부부가 함께 등록했습니다. 첫 강의를 가서 보니 저와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제는 손자녀 양육이 할머니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4기 시부모장인장모학교를 마치고 | 사진 원종석 기자

“말을 줄이고 소통하라”

첫날 김충섭목사님께서 ‘격대신앙교육 및 조부모의 삶과 역할’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격대교육이란 조부모가 손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부모의 사회활동으로 인해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기 어려운 여건이 여러 가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어느 정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를 어려서부터 양육하면서 자녀부부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손자녀를 영육 간에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것이지요. 조부모는 실패하지 않는 육아조력자인 것입니다.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그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고 경험 이 많은 조부모는 감정을 잘 조절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칭찬과 격려는 손자녀가 훌륭한 리더가 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응당 상세하고 천천히 타일러줘야 할 것이, 조급하게 윙박지른다고 무슨 이득이 있으랴”

-조선중기 선비 이문건의 <양아록>중에서-

할머니의 칭찬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입니다. 손주가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많이 올랐을 때 엄마와 할머니가 어떻게 다를까요?

엄마 : “잘하긴 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1등 할 수 없니?”

할머니 : “잘했다. 넌 무엇이든지 잘해. 우리 손주가 최고다”

토계 이황이 손자 안도에게 보낸 편지 160통 중에는 옷 입기, 식사예절, 말버릇 등 생활교육전반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조부모의 무릎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모여 앉은 채로 가정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릎학교 또는 무릎교육」이라고 했답니다.

“옛날 손주와 요즘 손주들”

둘째 날은 ‘발달기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의학적 지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결핵, 홍역, 소아마비, 장티푸스, 기생충, 영양실조가 많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바이러스감염, 알레르기질환, 아토피피부염, 비만 등 질병의 구조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시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1세 이하에서는 후방향 시트를 착용하고 1~3세는 전방향 시트를, 4~8세는 부스터의자를 사용해야하고, 어른들은 멀리 볼 수 있지만 신생아는 불과 20~30cm만을 볼 수 있고, 5~6세 되어야 성인시력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그리고 모유는 신생아의 인체 보호기능을 강화시켜주며 급성설사, 중이염, 요로감염, 패혈증, 당뇨, 종양, 백혈병, 알레르기, 비만 등 많은 질병들의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강의 내용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경험으로만 알고 있던 아이들 양육이 의학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를 많이 알게 되어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셋째 날은 ‘발달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아상식’을 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보니 왜 성격이 좋은 사람이 멋지고 품격 있고 선한 품성을 갖게 됐는지, 이것이 유아기 시절부터의 양육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격은 교육과 성장환경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바뀔 수 있는 학습된 행동입니다. 품성은 환경에 의해 체계화되어 학습된 행동인 것입니다.

조부모의 칭찬과 반응은 아이들의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야 하며, 손주들의 재롱에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하기도 하고 함께 흥얼거려야 합니다. 잘할 때 칭찬하고 마음으로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일 때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넌 못 생기지 않았어. 네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알게 될 거야”

마지막 날은 특별한 한 소년을 둘러싼 가족과 우정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원더’라는 영화를 보

았습니다. 얼굴에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어기’라는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루어 내는지 잔잔한 대화를 통해 전해집니다. ‘나는 네 편이야’, ‘너를 가장 잘 아니까’, ‘넌 혼자가 아니야’, ‘이겼니?’, ‘넌 기적같은 아이야’와 같은 간결한 대사가 엄청난 울림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지도 모를 일이지요.

“손주를 잘 보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부모장인장모 학교를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는 손녀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대응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으며,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 부부에게 생겼습니다. 또한 우리 부부도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후손을 길러내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남**



강용석 집사 이심 집사
중구·용산교구

2018년 사회봉사부 사역을 되돌아보며



박재현 목사
마포·영등포교구
사회봉사부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이 되었습니다. 2018년 사회봉사부의 사역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감사의 제목이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기에 올해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봉사부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께 이 지면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일봉사팀 봉사자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넷째 주 사회봉사주일이 되면 추운 겨울 눈이 많이 오거나 빙판이 되어도,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도,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부터 그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웃음을 잊지 않으시는 봉사자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헌신을 더욱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가정복지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우들, 혼자 계셔서 외로운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사랑하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족처럼 걱정해 주시고, 친구처럼 말벗이 되어 주시고, 시장보기와 청소까지 맡아 주시며 정해진 시간이 지났음에도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함께해 주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여러분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헌신이 많은 열매



이웃섬김팀, 서울역 신생교회 배식봉사



사회봉사주일 주일봉사팀



방과후교실팀



금요샴푸조의 백병원 봉사

맺기를 기대합니다.

백병원 금요샴푸조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거나 여건이 허락지 않는 입원 환자들이 소소하지만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는 머리 감고 씻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봉사의 손길을 통한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병원 앞에 있는 영락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새가족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 이것이 바로 행함을 통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클 것입니다.

방과후교실팀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기념관 7층은 방과 후 학습을 하기 위해 오는 친구들로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중학생들에게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넘어서 인생의 상담자요, 영적 멘토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학습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신앙교육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해야 할 저녁 시간에 학생들을 위해서 저녁식사와 간식 준비로 수고하시는 팀장님과 주방봉사자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학생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학생들의 마음에 여러분은 사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웃섬김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변에는 거주할 집이 없어 밖에서 거주하는 노

숙자들과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한끼의 식사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름에는 봉사하시는 데 땀도 많이 나오고 노숙인들의 냄새도 많이 날 텐데 그 누구도 인상 짜푸리지 않고 내 식구에게 밥과 반찬을 배식한다는 생각으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봉사자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노숙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고백 안에 이웃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 갑작스럽게 어려운 이웃이 생겼을 때 아낌없이 도움을 주시고 섬기시는 많은 분들과 부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질 텐데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김장 김치 담그기와 연탄 배달 봉사를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김장을 담그기 위해 좋은 배추와 양념을 선별하고 수백 포기의 배추를 마치 자기 집 김장 담그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면서도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모습은 감동이며 은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 주거 여건이 많이 향상된 듯 하지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매년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연탄을 구매



방과후교실 학생과 교사들 신양수련회를 마치고

하지 못하고 냉방에서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도님들의 성탄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고등부와 대학부, 자유인 그리고 사회봉사부원들 약 60여 명이 연탄 배달 봉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연탄재가 묻고 웃도 더럽혀 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에 미소를 잊지 않고 기쁨으로 연탄 한 장 한 장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며 봉사의 보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봉사부를 섬기시는 부장 장로님과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봉사부는 실제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봉사해야 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봉사부는 겨울이 되고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과 도움이 더 필요할 텐데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모든 길마다 안전을 지켜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봉사부의 모든 봉사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일반 사회봉사 단체가 아니라 영락교회 사회봉사부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수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메마르게 된다면 마음에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마 22:36~40).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회봉사부가 되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보이지는 않는 곳에서 사랑으로 헌신하신 사회봉사부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날**

교회소식



새가족 환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일(10월 14일~10월 31일)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등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10월 14일	변정순	08	063
	윤현수	09	031
	김경미	06	013
	송명주	09	031
	김현수	05	049
10월 19일	황현	04	098
10월 20일	성루아	04	098
	성도아	04	098
10월 21일	양길자	08	071
	김보라	15	011
	류난희	15	011
	손주영	08	037
	박평옥	04	054
	전성애	10	052
	김지영	09	019
	구영아	04	014
	이예진	07	004
	이동엽	08	019
	지정근	07	004
	박재두	06	006
	장현규	06	044
	장승규	06	044
	정온유	18	007
10월 28일	홍성진	06	016
	안삼분	06	016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10월 28일	백명자	07	000
	문미리	08	060
	김중현	04	056
	노영자	14	000
	조철래	04	065
	하영란	05	036
	정재숙	05	046
	조복순	04	056
	김상민	12	005
	황동욱	05	046
	이재학	02	041
	조상숙	02	041
	홍정민	06	016
	진성무	07	000
	김현중	07	000
	차경선	05	036
	박혜진	07	000
	이은경	05	013
	이동환	02	041
	이수진	01	000
	김승채	09	052
	김주언	08	002
	김주은	15	028
10월 31일	장술	04	098
	장준	04	098

목회력

12月

- | | |
|---------|---|
| 1일(주일)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 2일(주일) |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교회창립 73주년 기념주일, 임직식, 원포인트 교육주간 |
| 7일(금) | 심방준비회, 연합권찰공부 종강 |
| 9일(주일) |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세례·입교식, 사랑부예배 성찬, 찬양예배 성찬, |
| | 찬양예배 성찬, 제직회, 원포인트 교육주간 |
| 16일(주일) |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원포인트 교육주간 |
| 23일(주일) |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사회봉사주일, 원포인트 교육주간 |
| 25일(화) | 성탄절, 전세대가 참여하는 성탄예배, 유아세례식 |
| 30일(주일) | 은퇴식 |

교회사식

2018년 영락교회 선교대회 화목하게 하는 선교

2018년 영락교회 선교대회가 “화목하게 하는 선교”라는 주제로 10월 21일(주일)부터 24일(수)까지 진행됐다. 선교부(부장 정천우 장로) 주관으로 준비한 이번 선교대회는 주제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되새기고, 주님께서 주신 화목을 세상에 전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됐다.

올해에는 대회에 앞서 선교바자회(주관 1·2·3·4 여전도회)와 문화선교축제가 개최됨으로써 선교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다. 17일과 19일 양일간 진행된 바자회는 영락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과 주민들도 모두 함께하는 잔치의 자리가 됐다. 여전도회 회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다양한 먹거리와 옷, 액세서

리 등 좋은 물건과 기쁨을 나눔으로써 모든 사람
이 선교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문화선교축제 - 큰 기쁨으로

19일 금요심야기도회에서 진행된 문화선교축제는 ‘큰 기쁨으로’라는 제목의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이 특별했던 것은 문화선교부가 진행한 뮤지컬 작가 교육 과정을 통해 제작된 첫 번째 공연이었다는 점이다. 작가가 단기선교를 통해 경험했던 일들을 극화한 본 공연은 문화선교 소속 공연팀 위트니스의 열연과 함께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영락교회 교우들이 선교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선교의 기쁨을 누렸으리라 생각한다.

선교대회는 10월 21일 선교주일부터 시작됐다. 1~5부까지 김운성 위임목사님께서 선교대회와 선교사역에 대한 말씀을 전했으며, 베다니 광장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부스를 통해 교우들에게 영락교회 선교사역을 소개했다.

영락교회 ‘선교사와의 만남’은 작년부터 시작되어 영락교회 교우들이 기도로 함께하던 선교사를 직접 만나고 교제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도 본 교회 파송선교사를 중심으로 6명의 선교사가 영락교회를 방문하여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그 외에도 영락교회 학원선교의 산실인 7개 학교를 소개하는 부스, 영락교회 외국인 성도(러시아,

몽골, 네팔, 중국)의 찬양 공연과 다과 부스, 문화 공연, 영락교회 선교사역 소개 부스가 베다니 광장을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어주었다.

주일 저녁 찬양예배는 학원선교대회로 드려졌다. 강사로 모신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형섭 목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 1:4, 4:19)라는 말씀을 전하시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대광초등학교, 보성여자중학교, 영락고등학교의 특순 공연과 우수호 목사(대광고 교목실장)의 간증으로 진행된 학원선교대회는 영락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역에 매진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구한 시간이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낮에는 국내·외 선교전략세미나가, 저녁에는 선교부흥회가 진행됐다. 22일에는 해외선교 전략세미나, 23일에는 군선교 전략세미나, 24일에는 농어촌선교 전략세미나가 개최됐다.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과 영락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와 사역자들을 모시고 진행된 세미나는 변화하는 시대에 직면하여 선교 사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박은조 목사님(은혜샘물교회)을 모시고 진행됐던 선교부흥회는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영락교회 교우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는 구한 자리가 됐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마 16:13-20) ‘제자를 키우시는 하나님’(사 54:11-17), ‘하나님의 일꾼’(마 11:25-30)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해주었다. 3일 동안 말씀을 통해 감동받은 모든 교우가 영락교회와 한국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자리가 됐다.

더불어 선교대회를 통해 많은 교우가 인도네시아 바탐 진승학원 교실 건축을 위해 많은 기도와 정성을 모아주었다. 앞으로도 진승학원이 동남아 학원선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젊은이와 어린 영훈들이 진승 학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이번 선교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섬겨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영락교회 선교사역이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화목을 누리고 전하는 선교사역의 자리에 영락교회 모든 교우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선교부 또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것이다. 내년 선교대회는 올해보다 더 풍성하고 유익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글을 맺는다. **만남** <관련 화보 : 69면>

제공 선교부

교회소식

이철신 원로목사 설교집 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철신 목사님은 영락교회에서 시무하시는 20년 동안 민족의 나갈 역사적 방향과 민족 복음화, 세계선교를 위해 헌신하신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철학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와 연결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교회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시무 20년 동안, 오직 말씀 중심의 영락 강단에서 울려 퍼졌던, 2,000여 편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선포된 말씀 중, 우선 일부를 선별하여 『이철신 목사 설교집』으로 발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집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이웃 섬김과 나눔에 관한 내용으로 편집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에 쉽게 접근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갈급한 심령을 채워서 고달픈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설교집이 됨은 물론 영락교회 성도들이 사명과 자긍심을 갖도록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간행사 중에서

“필자는 20년간의 영락교회 목회사역을 포함하여 40년간의 목회사역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한 부끄러움도 많습니다. 설교사역의 보람과 부끄러움이 가장 큽니다. 매 주일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사역을 하는 중, 설교 후에 회개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설교사역에 항상 동참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이철신 목사의 저자 머리글 중에서

“이철신 목사님의 설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냅니다. 또 말씀의 배후에 인간적 계산이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가진 능력으로 성도들이 은혜 안에 거하여 말씀이 약속한 축복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아울러 그 설교에는 목사님의 성실한 마음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설교 원고를 한 자 한 자, 정성껏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한 자씩 적어 내려갈 때, 그것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요, 눈물이요, 축도였습니다.”

- 김운성 목사의 감사의 글 중에서





이철신목사설교집 간행위원회

이철신 원로목사 성역 40년(영락20년:1998~2018) 은퇴기념 설교집이 출간됐습니다. 시무하시는 20년 동안 오직 말씀 중심의 영락 강단에서 울려 퍼졌던 2,000여 편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선포된 말씀 중 일부를 선별하여 3권 1질로 구성된 『이철신 목사 설교집』은 영락교회 신앙지도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제1권 하나님 사랑, 제2권 민족 사랑, 제3권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엮었고, 제2권은 “영락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민족을 살리는 교회’와 ‘민족 복음화 정신’과 ‘영락교회의 사명’을 중심으로 편집했으며, 제3권은 “새 영으로 회복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경천애인’과 ‘젊은 세대를 세우는 교회’와 ‘새 영으로 회복된 공동체’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는 이철신 원로목사의 퇴임 인터뷰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성경별로 정리된 설교 색인을 함께 수록했습니다.

『이철신 목사 설교집』은 지난 10월 28일(주일)부터 11월 11일(주일)까지, 2만원의 선교후원금으로 3주 동안 베다니 광장에서 성도들에게 한정수량이 보급됐으며, 선교후원금은 교회 예산으로 환원되어 영락교회 선교사역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보급 기간 이후 설교집을 원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전화:2280-0292)

제공 이철신목사설교집간행위원회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수험생을 위한 기도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가 11월 3일 첫 주 토요일 박지운(선교부) 목사의 인도로 본당에서 드려졌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11월 15일(목)에 실시하는 대 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부 3학년과 베드로부 학 생들, 부모들을 위하여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총명,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하며 기도로 시작했다.

이어, ‘눈을 들어 보라(창 13:14~18)’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고단해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주어진 삶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 올지 믿음의 때를 기다리며 복음의 열매 맺는 영락 가족이 되자”는 말씀을 전했다.

취재 최윤미 부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제7회 아동부 연합찬양제, Little Star(리틀스타)



지난 10월 28일(주일) 제7회 아동부 연합찬양제 ‘Little Star(리틀스타)’가 베다니홀에서 찬양예배로 드려졌다. 이 날 찬양예배는 박봉수 안수집사(소년부부장)의 기도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리틀스타(다니엘 12:3~4)’라는 주제로 백성우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후 순서로 각 부서 찬양대가 오랜 기간 정성껏 준비한 찬양들을 멋지게 연주하는 순서가 진행되었다.

아동부 연합찬양대(유년부찬양대, 초등부찬양대, 소년부찬양대, 소년부양상불)는 마지막 순서로 ‘즐거운 마음’과 ‘Sing!찬양! 온 세상 만드신 주’ 등의 찬양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연주하여, 참석한 많은 교우들에게 아름다운 천사들의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무대를 선사하였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한 이 날 아동부 연합찬양제는 어린 영혼들의 순수하고 맑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영광의 시간이었고, 찬양의 감동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2018년 12월 1일(토)

매 월 첫 번째 토요일, 오전 6시 30분,
본당에서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입시와 취업을 위한 비전기도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대학입시(수능)와 취업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 취업준비생들과 베드로부 재도전 입시생, 교사,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함께 1차 2018년 11월 3일(토, 오후 5시 30분 50주년기념관 503호), 2차 2018년 11월 10일(토, 오후 5시 30분, 드림홀) 비전기도회가 있었다.

고등부(임현우 지도목사, 부장 이종근 장로)는 꽉 상학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청진기 저자)를 초청하여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길을 계획할지라도(데살로니가후서 2:13-17, 잠언 16:9)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아가자’고 전하였다.

2부는 고등부 이사도 목사의 인도로 수능과 취업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와 보호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힘을 얻어 수능시험과 남은 입시기간을 함께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 최윤미 부선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포항강성교회 교육관 현당예배, ‘잔치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지난 10월 4일(목) 제1여전도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자립교회인 포항강성교회 교육관 현당예배에 선교부 임원과 제1여전도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렸다.

포항강성교회 교육관은 2년 전(2016년)에 무속 지역 중심에 선 사천암 절터를 매입하여 선교부와 제1여전도회 후원으로 재건축됐다. 신영철 목사(포항강성교회 담임목사)는 “절터 위에 세워진 교육관이 한동대학 기독동아리, 청소년 동아리,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배는 신영철 목사의 인도로 열려, 영락교회에서 참석한 정천우 장로(선교부 부장)의 기도, 서승신 권사(제1여전도회 회장)의 성경봉독, 최승도 목사(선교부 지도목사)의 “잔치가 있는 곳”이라는 설교에 이어, 신영철 목사의 봉헌기도 및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제공 선교부



제4차 교회연합 의료선교세미나, 북한 의료선교를 주제로 열려



의료선교부(부장 김정훈 장로)는 제4차 교회연합 의료선교세미나를 11월3일(토) 오후 4시 드림홀에서 개최하였다. 문화선교 문화사역팀의 난타공연과 김정훈 장로의 인사로 시작되어, 제1부 경건회는 정 천우 장로의 기도와 김운성 위임목사의 “마음에 달도록”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제2부 세미나는 김효준 의료선교협회 수석부회장의 축사, 이상희 교수의 바 이올린 축하연주, 전우택 교수(통일보건의학회 이사 장)의 “북한 의료선교를 위한 신앙적 성찰”이라는 제 목의 특강과 김지은 원장(자유인 한의사)의 간증, ‘북 한 의료선교’에 대한 패널 토의에서는 자유인 간호사 들과 김윤환 교수(고려대 남북보건의료협동과정의) 가 참여하여 열띤 토의를 하였다. 제3부 친교 및 만찬에서는 각 교회의 선교활동 보고와 참석자 소개가 있 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28개 교회에서 총 157명 이 참석하여 북한 의료선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선교방향을 기능하는 귀한 자 리가 되었다.

제공 의료선교부 사진 원종석 기자

2018 전도폭발 홈커밍데이, 전도가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



2018년 전도폭발 홈커밍데이가 지난 10월 27일 (토)에 오전 10시 드림홀에서 있었다. 전도폭발 훈련은 국제적 전도훈련 및 제자훈련사역으로 우리 교 회는 화요반과 토요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훈련 을 수료한 2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김운성 위임목 사는 “전도가 삶이 되게(딤후 4:1~8)”라는 제목으 로 “전도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다. 전도는 교회의 기초이므로 교회의 모든 것이 전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일상의 삶 도 전도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내년 도 교회 표어를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로 정하여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 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도사례 나눔(윤극명 안수집사, 이화숙 집사)으로 일상전도의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29장을 써 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뜨겁게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홈커밍데이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전도와 전도훈련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제공 선교부 전도훈련팀

제11회 창작성가발표회 개최, 영락작곡가회 주관으로 열려



지난 10월 27일(토) 선교관에서 음악부(부장 조영리 장로)가 주최하고 영락작곡가회가 주관한 창작성가발표회가 열렸다. 발표회는 장세완 집사(지휘자)의 사회로 리틀 호산나찬양대가 창작성가 11곡을 연주하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찬양 곡은 새로운 선율을 통해 우리의 소망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여 고백의 시간이 되었고, 성탄절을 앞두고 캐럴이 다수 포함되어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떠올리는 자리가 되어 뜨겁게 환호했다.

영락작곡가회는 2010년에 창립되어 올해 11회째 창작 성가를 발표하며 한국의 성가 곡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제공 음악부 사진 원종석 기자

바로잡습니다

지난 538호 영락지금 18면에 소년부 김동호를
최동호로 정정합니다.

농청 어울림 탁구대회, 영탁스가 농인과 탁구로 하나 되다



지난 10월 6일(토) (사)영통회 주최로 제2회 ‘농청 어울림 탁구대회’가 코리아 탁구장에서 개최되어 영락교회 탁구 모임인 영탁스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영탁스(회장 김일동 은퇴안수집사)는 2016년에 발족되어 탁구를 사랑하며 같이 모여 친교를 나누는 영락교회 교인들의 공동체이다.

궂은 날씨에도 9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하였고, 영탁스는 6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타 교회 및 영락농인교회 교인들과도 탁구를 통한 친교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농인과 청인이 함께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사회를 밝히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탁구를 통해 서로 친선을 도모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경기 만큼은 치열하게 치루며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총무 010-4912-4740

제공 영탁스 사진 김태영 객원기자



제195회 서울노회, 목사 임직식 영락교회 본당에서 열려



제195회 서울노회가 “영적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히 13:12~16, 합 3:2)”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5일(목) 오전 9시 본당에서 열렸다.

이날 노회는 개회예배와 성찬으로 시작되어 신구임원 이·취임식과 회무처리 순서로 진행됐다. 박순태 장로(전 노회장, 영락교회)가 개회예배 기도 순서를 맡았으며, 여전도회연합회 찬양대가 찬양을 했다.

같은 날 오후 5시에 진행된 목사 임직식에서는 서울 노회 소속 이사도(영락교회 고등부) 외 8명의 전도사가 목사 임직을 받았고, 김운성 위임목사가 안수위원으로 참석했다.

영락의 성도들과 고등부 학생들이 참석하여 이사도 전도사의 목사 임직을 축하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다.

제공 목회행정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운성 목사 추대



평준화 제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 학교 정상화를 위한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기정추)는 지난 9월 21일(금) 2018년 하반기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철신 목사(영락교회 원로목사)에 이어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위임목사)를 기정추 제3대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하고 2019년 연구 및 사역 검토를 진행하였다.

11월 2일(금) 김운성 목사와 기정추 운영위원들이 만나 향후 기정추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과 기독교 학교’를 주제로 한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구국과 애국을 이끈 기독교 역사에 대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한국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9년 2월 중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궁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국기독교 학교대회’를 영락교회에서 개최하고 이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공 선교부 사진 기정추 사무국



평생대학, 취미활동반 작품전시회 열어



지난 11월 4일(주일) 베다니광장에서 평생대학의 취미활동반 학생들은 올 한 해 정성으로 준비한 100 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전시회는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영락의 신앙 유산을 전수하며 교제를 나누는 취미활동반의 봇글씨, 드림 스케치, 컴퓨터 활용능력, 손뜨개질로 직접 만든 의류 등 많은 작품을 전시하여 노년의 활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느끼게 했다. 평생대학은 오는 11월 28일(수) 1, 2학기 과정을 마치면서 합창, 노인건강댄스, 몸 찬양, 하모니카 연주, 한국무용 등 다양한 순서를 마련해 공연을 한 후, 50주년기념관 베다니홀에서 종강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제공 평생대학

대광학원 개교 71주년 기념예식 기독교 교육·전인교육의 요람!



지난 10월 25일(목) 오후 2시 대광중·고등학교 추양(秋陽) 한경직기념 대강당에서 ‘대광학원 개교 71주년 기념예식’이 열렸다. 남북 분단 이후 실향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故 한경직 목사님이 설립한 대광학원이 올해로 개교 7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념예식은 김운성 위임목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란 제하의 말씀에 이어, 이사장 이철신 목사의 장기근속 교직원 표창 및 김철경 교장(대광고)과 김희준 교장(대광중)이 대광을 빛낸 동문에게 ‘추양대광인상’ 표창을 수여하고 교가제창을 한 후, 김운성 위임목사의 축도로 일정을 마쳤다.

제공 대광학원

교역자 동정



2013년 1월부터 본 교회 부목사로 사역한 한현수 목사가 2018년 10월 21일자로 사임하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예일교회(www.yeil153.org)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다. 본 교회에 재임하는 동안 한 목사는 중구·용산교구, 강서·구로·양천교구, 동대문·중랑교구, 선교부(전도), 북한선교부, 목회행정, 2남2여선교회, 4남4여선교회, 임마누엘찬양대, 시온찬양대 등을 담당하였다.



영락역사자료

10월 사료 기증 현황

기증자	기증일	기증사료
김도정 권사 인천교구	10/2	- 영락교회 관련 인화사진 7건 - 1981년 9월 20일 김도정 권사 영락성경학원 이수 증서 외 상장류 11건
신서영 은퇴집사 용인·화성교구	10/2	- 영락교회 관련 인화사진 2건 - 1981년 특기수료생 주소록 외 문서류 4건 - 1974년 6월 12일 초청음악예배 Malone College Choir 팜플릿 외 박물류 6건 - 가시밭에 백합화 성도의 찬송 외 도서간행물류 5건
고상우 은퇴장로 성남·분당교구	11/4	- 영락교회 관련 인화사진 1건
박일환 장로 성남·분당교구	10/10	- 2008년 7월 27일 임시당회 교육혁신위원회 중간보고 외 문서류 4건 - 2007년 영락교회 교육혁신위원회 정책당회 외 도서간행물류 5건 - 故 秋陽 韓景職 牧師 總會葬 순서지 1건
윤재명 은퇴안수집사 마포·영등포교구	10/10	- 영락교회 관련 사진 앨범 1건 - 설교예화 한경직 예화 2 외 도서간행물류 8건
송재규 은퇴집사 동대문·중랑교구	10/19	- 2001년 제41회 전체 산상기도회 일반음성테이프 9건 - 1992년 9월 28일 특별새벽기도회 일반음성테이프 6건
박정득 성도 노원교구	10/22	- 박조준 목사 설교집 일반음성테이프 5건 - 秋陽 韓景職 牧師 도서간행물류 1건
이정호 은퇴장로 강서·구로·양천교구	10/26	- 영락교회 관련 인화사진 3건 - 세계교화 갱보협회 홍보 팜플릿 외 박물류 1건

사료를 기다립니다

1. 2000년대 이후 장로장립, 집사안수식 순서지
2.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수상 사료(외부인사 서신 포함)
- 외부기관 수여 감사패
3. 교회를 상징하는 주요 기념품 - 교회 깃발 및 로고, 교회의 머릿돌
4. 교회 발행 도서/간행물 - 제작부서의 정기 간행물, 교회학교 및 교회 교육자료
음악부 찬양대 간행물, 설교문 및 설교테이프

문의 : 역사자료실 ☎02)2280-0357



>> 영락화랑 : 아름다운 묵상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눅 10:37)
고흐는 누구나 친숙해하고 그의 그림은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화가지만 그의 삶과 작품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해석도 많다. 근래에는 그의 작품은 광기의 결과가 아니라 그

가 믿었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깊은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재해석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그는 엄격한 개신교 가정에서 자랐고 화가로서의 초창기 시절 탄광촌에서 전도 사로 사역을 하며 ‘감자 먹는 사람들’ 등 따뜻한 작품을 남겼고 그가 스승으로 존경하며 따르고 싶어했던 화가도 렘브란트나 밀레, 들라크로와 같은 신앙심 깊은 화가들이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을 그린 이 그림도 들라크로의 같은 제목의 그림을 모사한 것이지만 고흐 특유의 색과 터치, 그리고 배경을 뭉개듯이

처리한 회화적인 방법으로 다르게 그려내고 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싫어하고 멸시하는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의롭게 포장해보려고 하나님 사랑은 뒷전이고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상처 입은 유대인을 돌봐 주게 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신다.

나는 누구이고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최진희 편집위원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성탄절이 있는 12월 「만남」은 김운성 위임목사께서 본 교회에 부임한 첫해 송년특집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예수 탄생”이라는 특집 주제 속에 중첩해 있는 이러한 여러 기쁜 의미를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달엔 표지에서부터 어린이 찬양대가 성탄을 축하하며 찬양합니다. 바로 안쪽에 복음 전도의 깃발을 높이 든 교회 모습에 ‘만남의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국민일보 기자 표현을 빌리자면 “기적을 무대에 올렸다”고 합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사랑부가 올린 연극, ‘붕어빵의 비밀’이 그렇답니다. 40면에 있습니다. 그 뒤에 ‘기도편지’라는 신설 코너는 어떻구요. 원래 기도자의 생생한 육성 녹음파일도 함께 올리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세요? 녹음하다 눈물로 막히고 또 녹음하다 멈추지 않는 눈물로 멈추고 또 녹음하다 …… 결국 은혜 가운데(?) 녹음을 못 했답니다.

늘 그렇습니다만, 「만남」 제작 과정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맡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현 편집진이 은혜 가운데 진행해올 수 있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송년특집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과 함께 은혜 나누며 우리 모두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장 김병욱 안수집사

>> 독자 의견

- 지난 11월호를 보며, 어른이나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숨은그림찾기’가 재밌고, ‘아름다운 묵상’ 그림은 설교말씀 내용이라 더욱 눈길이 가고,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작들과 일반교인들에게 세례, 유아세례, 입교의 중요성과 의미 등을 쉽게 설명하고, 특히 교회봉사와 예배에 임하는 자세 등도 만남지에 점차적으로 실으면 좋겠습니다. 임신애 권사(강서·구로·양천교구)
- 「만남」지 제작에 수고하시는 분들의 땀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대표 간행지로서 더욱 사랑받는 만남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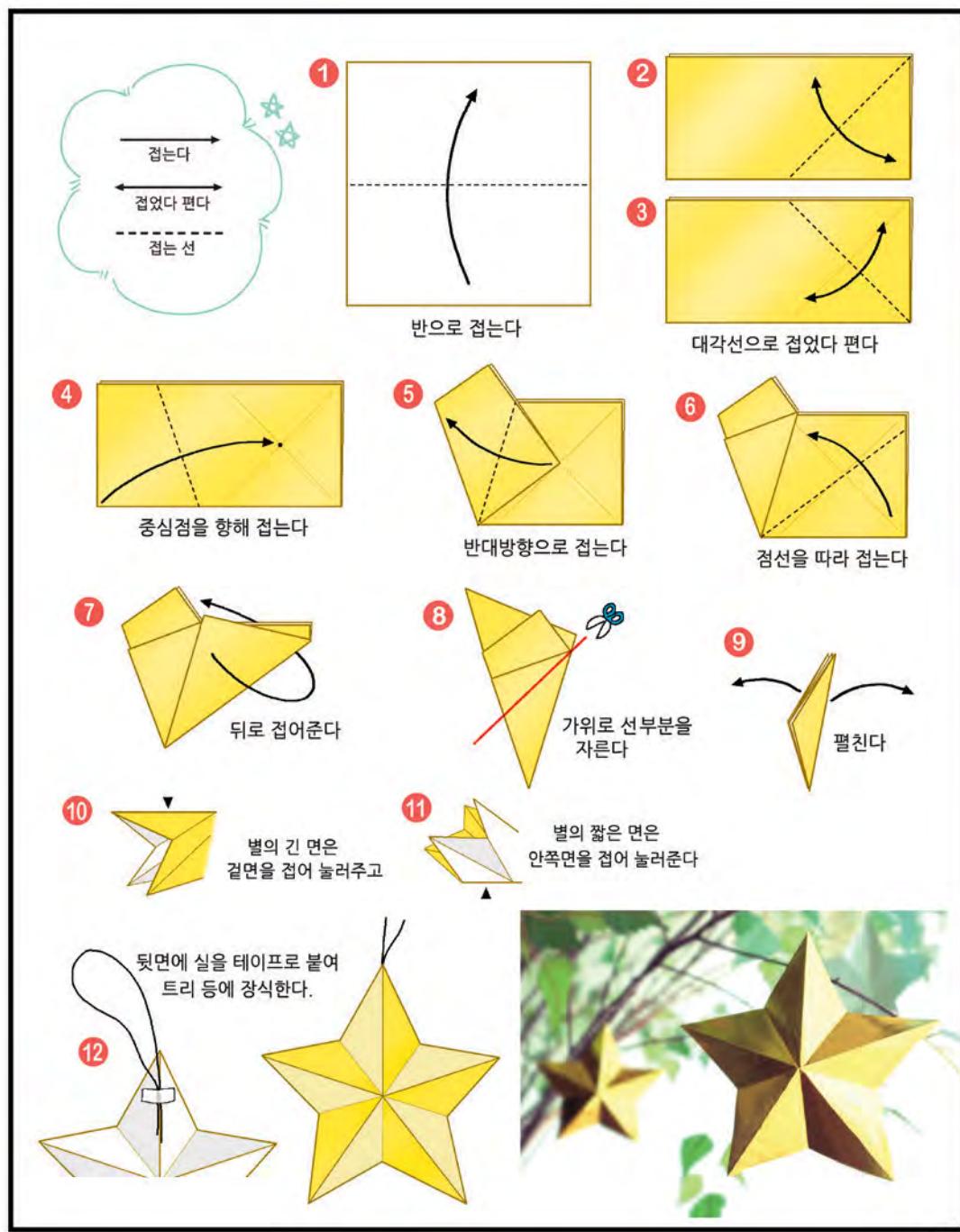
이광소 집사(성동·광진교구)

▶ 독자 의견을 기다립니다. 홍보출판부 youngnak-hb@daum.net 02)2280-0197~8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크리스마스 별 접기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아기 예수님 오신 성탄을 맞이하여 금색종이로 예쁘게 별을 접어 장식해 보아요~





선교바자회



외국인 예배 찬양(몽골)



선교사와의 만남

화목하게 하는 선교

지난 10월 21일(주일)부터 24일(수)까지 선교대회가 열렸다. 17일(수)과 19일(금) 선교바자회로부터 시작하여 24일 선교부흥회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 그 약동하는 모습을 화보로 담아본다.〈관련 기사 : 56면〉

사진 선교부



22일(월) 해외선교전략세미나

22일(월)~24일(수)



군선교 전략세미나



농어촌선교 전략세미나



선교부흥회

영락화랑

아름다운 묵상



빈센트 반 고흐, 유화, 73×60cm, 1890

선한 사마리아인(The Good Samaritan)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